

청소년 금융활동 역량강화 방안

일 시 2024년 3월 18일 (월) 15시~17시

장 소 시립광진청소년센터 B1층 대극장



공동주최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 관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청소년 금융활동 역량강화 방안

개요

- 일시 : 2024년 3월 18일 (월) 15:00~17:00
- 장소 : 시립광진청소년센터 B1층 대극장
- 공동주최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일정

사회: 김윤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장)

시 간	내 용
14:55 ~ 15:00	등 록
15:00 ~ 15:05	개회사 국민 의례 주요내빈소개
15:05 ~ 15:20	인사말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고승범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회장)
15:20 ~ 16:00	주제발표 「청소년들은 ‘금융’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 실태 -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6:00 ~ 16:10	휴식 및 자리준비
16:10 ~ 17:00	종합토론
	좌 장 최현자 (서울대학교 교수)
	패 널 조혜진 (인천대학교 교수)
	김나영 (양정중학교 교사)
	황선하 (아자스쿨 대표)
	박소연 (㈜유니어스에듀 대표)
	정윤식 (㈜롬버스 대표)
17:00	폐 회

C O N T E N T S

주제발표

○ 「청소년들은 ‘금융’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1

 -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 실태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종합토론

1 「청소년들의 금융이해력과 금융생활」 토론문 27

 조혜진 (인천대학교 교수)

2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금융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 33

 김나영 (양정중학교 교사)

3 청소년들의 “금융”에 대해 우리 사회가 바라는 궁극적인 그 무엇(목적) 41

 황선하 (아자스쿨 대표)

4 청소년 금융교육의 본질적인 변화 기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건전한 금융 태도의 함양 47

 박소연 (㈜유니어스에듀 대표)

5 청소년 금융 교육 정책 목표의 효율적 추진

 - 중/고등학교 금융 교육 현장의 제언 55

 정윤식 (㈜로버스 대표)

「청소년들은 ‘금융’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 실태 -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jkkim@nypi.re.kr)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이 연구를 왜 했나?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금융교육을 하나의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으로 인식하고 정부 정책의 하나로 지속 지원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발생을 계기로 주요국에서는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이 소득 격차의 심화와 양극화의 주요 원인의 하나임을 인식
 - OECD는 원활한 생활을 위해 금융역량의 필요와 이를 기를 수 있는 금융교육의 중요성 인식 하고, 미래 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역량으로 금융이해력의 중요성 강조
 - 2008년 5월 금융교육 전담 기구인 ‘INFE(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 설치, 각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이해력 측정도구 개발·제공
 - OECD/INFE가 개발한 측정도구의 내용을 준용, 우리나라 전국 18세~79세 개인을 대상 ‘금융 이해력조사’를 2012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 →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전 국민 금융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
- 금융교육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수립·시행의 노력은 이어져 왔으나, 금융교육 정책이 국가정책 으로서 수립되는 청소년정책 안에서 필요성이 인식되거나 중요성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
 - 국가 수준의 금융교육 정책은 2013년 전 국민 대상 ‘금융교육활성화 방안’이 수립된 후, 2015년 ‘소비자 중심의 금융교육 강화 방안’으로 체계성 강화, 2017년 ‘수요자 맞춤형 금융 교육 추진 방안’으로 보완
 - 법정 기구인 ‘금융교육협의회’(「금융소비자보호법」 제31조)를 통해 발표된 2020년 ‘금융교육 개선 기본 방향’으로 발전, 최근 학교 정규교육에서의 금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고교 융합 선택과목으로 실생활 금융교육을 강조하는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신설
 - 2023년 2월 발표된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 추진과제 중 세부과제로 ‘금융

경제 분야 청소년 교육 실시'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 정책기본계획에 금융관련 과제가 처음으로 반영된 것임.

- 청소년 시기,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통한 금융이해력이 직후 생애 단계인 청년기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다양한 측면에서 포착
 - 청년 대상 자산형성 지원 정책의 확대되면서 정책지원 수혜 과정에서 금융이해력 필요하다는 청년층 의견 포착(2022년 청년재단 조사 결과, 응답자 59% 중·고등학생 때부터 공교육에서 금융·경제교육 필요)
 - 정부 정책지원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신청하지 못하는 청년들 다수 존재
 - '2022년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20대 청년들의 금융이해력 수준(65.8점), 전체 평균(66.5점)보다 낮음.
- 이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어떠한 측면의 교육이 보완 또는 강화되어야 하는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는 부재
 - 2년 주기로 시행하는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의 대상은 18세 이상~79세 이하
 - 일부 학술연구에서 측정하고 분석한 자료가 있기는 하나, 대표성을 확보한 표본조사가 아니며, 초·중·고생 전체가 아닌 특정 학교급의 학년으로 대상자를 한정하는 한계가 있어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불가
-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은 물론 일상에서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생활 실태와 관련한 사실들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다는 점
 - 예컨대 주식 열풍과 함께 증가한 미성년자의 주식 투자, 금융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10대 청소년의 증가하는 반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청소년이 불법사금융 피해나 금융 범죄에 연루되고 있다는 사실(→ 세대 내 격차 확인 필요)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측정하고, 동시에 일상에서의 금융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자료 확보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조사자료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청소년 대상 국가 수준의 금융교육 정책 방향 및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에 필요한 실증 근거를 제공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수행되었나?

- 통합연구방법(Mixed Methodology) 중 하나인 ‘순차적 통합방법설계(sequential mixed method design: QUAL/QUAN)’으로 연구 내용 및 방법 설계
 -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제에 대해 질적 자료수집과 분석을 한 다음 그 결과를 활용하여 후속으로 양적 연구를 진행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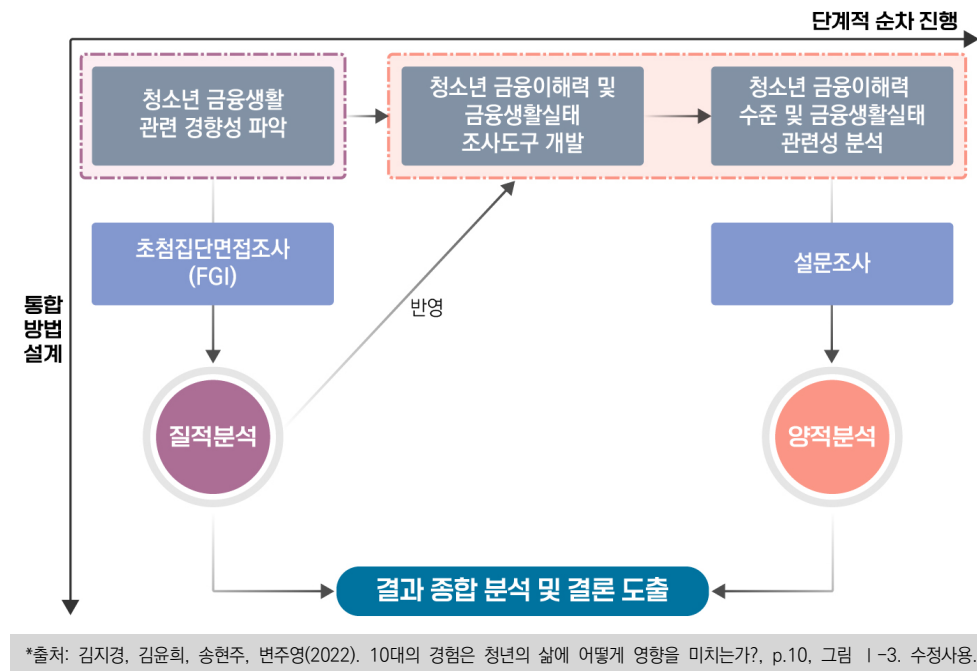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내용 및 방법 구성의 기본 설계

○ 단계별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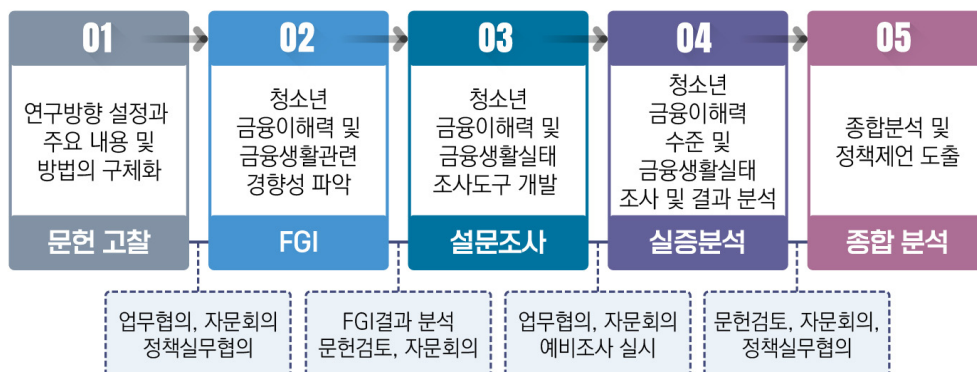


그림 2. 단계별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구성

3. 사전 검토 : 측정에 앞서 어떠한 내용들이 검토되었나?

○ 금융이해력의 개념 정의 및 정책적 관심에서의 발전 과정

- (OECD/INFE) 건전한 금융의사결정을 내리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금융웰빙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금융인식, 지식, 기술, 태도 및 행동의 조합
- 금융이해력에 대한 정의는 계속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과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시간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중요 요소가 달라질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요소 그 각각이 아닌 그것들의 “조합”이라는 사실
- **금융이해력에서 파생·발전된 개념들** :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 금융웰빙(Financial Well-being), 금융행복 (Financial Happiness),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등

○ 금융이해력의 설명 이론

- 자기 신념과 심리적 욕구에 초점을 둔 이론
 - ①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 ②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 관찰·모방 및 학습 경험에 초점을 이론
 - ① 사회적 학습 이론(Social Learning Theory)
 - ② 생애과정 또는 생애주기 이론(Life Course or Life Cycle Theory)
- 인지 수준에 초점을 이론
 - ① 인지 발달 이론(Cognitive Development Theory)
 - ② 행동경제학 이론(Behavior Economic Theory)
- 실증연구가 축적된 해외 연구들에서는 계획된 행동이론과 사회적 학습이론이 청소년 금융 이해력을 설명하는데, 있어 가장 광범위하게 거론되는 이론임.

○ 청소년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

- (해외 실증연구) 공통 요인 ①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 부모의 교육 → 미국에서는 청소년 금융 이해력 증진을 위해 부모 또는 부모와 자녀 2세대를 대상으로 정책 접근 이루어짐. ②연령이 올라갈수록 금융생활 범위 확대(esp, 미국 고교생), 부모 영향력 줄어들고 또래 중요성 높아짐. ③체험 및 경험을 접목한 금융교육이 이루어졌을 경우 금융행동에 가장 강한 영향 미침.
- (국내 실증연구) 실증연구 많지 않고 공통된 요인 발견되지 않음.

○ 우리나라 청소년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근 이슈

- (문헌자료, 언론 보도, 영상 자료 등에서 포착된 몇 가지 이슈)
 - ① 일상화된 청소년의 디지털 금융 생활 : 청소년 전용카드의 사용(예: 카카오뱅크 미니, 14세~18세 청소년 인구 '22년 기준 232만 명의 69%인 161만 명 가입)

② 동일 세대 내 “금융문맹”과 “적극 투자자”로 양극화

③ 선택적, 비자발적 금융교육 기회의 제한 : 교사 재량, 경제과목 개설 학교의 지역 격차
(서울 86% vs 전북 20%)

○ 불법금융행위 및 피해

- 불법금융행위인지 모르거나 연루되는 ‘휴대폰결제깡’, ‘내구제 폰테크’ 다수 발생

○ 정책 입법 동향

- (근거 법률) 금융교육 정책은 금융위원회 소관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0조(금융교육) 및 제31조(금융교육협의회)에 수립·시행, 기획재정부 소관 「경제교육지원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책에도 일부 반영
- (발의 법률안) ①2021년 11월 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②2023년 5월 홍성국 의원 대표 발의 「금융교육 진흥법안」
- (지자체 조례) 2020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2021년부터 금융교육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7개 광역시도(부산, 서울, 세종, 인천, 전남, 제주, 충남) 교육청 소관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 정책 수립 동향

- 2013년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청소년: 다양한 매체활용교육, 맞춤형 교육)
- 2015년 소비자 중심의 금융교육 강화(청소년: 금융교육 기회 확대, 생활중심교육, 교육과정 내 금융교육 내용 확대, 1개 금융회사 1개 학교 연계 교육)
- 2017년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청소년: 체험형, 생활밀착형 금융교육 확대, 고교 교육과정에 금융내용 확대)
- 2020년 금융교육개선 기본 방향(청소년: 교육콘텐츠 체계적 관리·개발, 자기주도 체험형 교육, 학교 정규교육에서의 교과연계 금융교육 강화)
- 2021년 금융교육 운영 방안(청소년: 코로나상황 대응 비대면 교육 강화, 생애주기별 담당 교육기관 역할 분담)
- 2022년 금융교육 강화 방안(청소년: 체험형교육 확대, 디지털기술활용 콘텐츠 개발·확산, 학교 교육 내 금융교육 강화(‘22개정 교육과정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신설, 통합사회 내용 내실화)
- 2023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청소년: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을 통한 교육 추진 (esp. 모의 투자, 불법사금융 예방 교육))

○ 청소년 금융이해력 측정 도구

- 미국의 점프스타트 및 미국경제교육협의회 개발 도구
- 미국 점프스타트 및 경제교육협의회 개발 도구 번안하여 2000년대 초반~10여 년간 국내 조사에서 활용

- OECD/INFE 표준화된 금융이해력 측정 척도 개발·보급 → 우리나라도 2012년부터 활용하여 2년 주기의 2,400가구 표본조사 실시
- OECD/PISA(국제학업성취평가 2012년 4번째 영역으로 처음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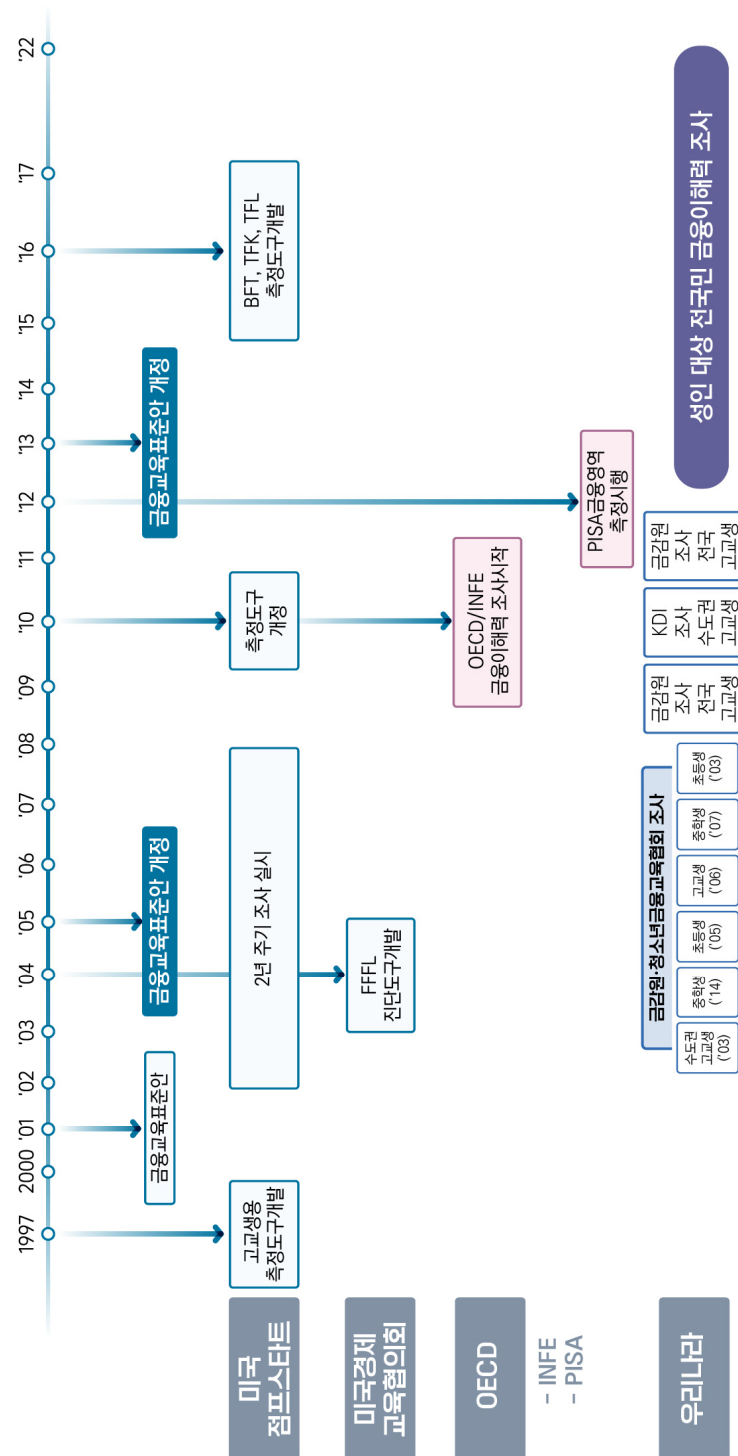


그림 3. 청소년 금융이해력 측정 도구의 개발 동향 및 우리나라 조사 실시 시기 비교

4. 청소년 금융생활 실태 파악을 위한 FGI

○ (청소년) 3개 그룹 총 14명 참여

- ① 청소년 선불지급카드(예: 카뱅 미니 등) 사용 고교 재학생, ② 선불지급카드 비사용 재학생, ③ 특성화고 재학생
- 선불지급카드 사용 경험, 수입과 지출, 투자활동, 리세일 거래 경험, 금융교육경험, 소액대출 경험, 금융사기 피해 경험 등 질의

○ (학부모) 3개 그룹 총 9명 참여

- ① 초등학생 자녀 학부모, ② 중학생 자녀 학부모, ③ 고등학생 자녀 학부모
- 자녀의 금융생활(저축, 소비, 용돈) 파악 및 지도, 자녀의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 금융교육에 대한 의견, 금융생활 관련 우려되는 점 등 질의

○ FGI 주요 결과

- 용돈 기입장은 더이상 불필요한 디지털 금융생활
 - ① 동전과 지폐를 볼 기회가 없는 세대
 - ② 디지털 생활, 금융 카드 사용이 일상화된 세대
- 자기 주도의 투자 경험 VS 부모 주도의 투자 경험
 - ① 자기 주도의 투자 경험에는 공통적으로 포래(학교, 온라인)와 미디어의 영향
 - ② 부모의 금융교육이 수반 여부에 따른 큰 격차
- 집단의 이질성 : 도박 관심 VS 주식 투자 관심
사행성 게임 및 도박 관심자와 주식 투자 관심자는 동일 집단이 아님.
- 동일 세대 내 금융역량 격차
관심 및 자기주도 정보 탐색에 따라 큰 격차
- 기억에 남지 않는 금융교육 VS 분화된 금융교육의 필요성 인식
 - ① 금융교육은 있었지만 관심도 집중도 되지 않았던 시간으로 기억
 - ② 금융교육의 방법과 내용에 대한 제각기 다른 분화된 금융교육의 필요성 인식
- 청소년 금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높은 필요성 인식
 - ① 금융교육이 필요성에 대해 학부모들은 높은 인식 수준
 - ② 학교가 아닌, 지역사회 금융교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교육 수요 포착

5. 측정 및 조사 :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측정했는가?

- (조사 표본) 전국 초등 4학년~고등 3학년 재학, 각 3천 명씩 총 9천 명 층화집락추출법으로 표집 후, 학교단위 집단면접조사 방식으로 자료 수집,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쳐 8,758명 응답자료 분석
-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 실태 측정)
 - (금융이해력) 중·고등학생은 OECD/INFE ‘금융이해력 조사’ 측정 문항의 구성 준용, ‘2022년 전 국민 금융이해력조사’ 문항을 청소년에게 맞게 수정하여 사용, 초등학생의 금융지식 측정 문항은 ‘2020년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의 영역별·학교급별 핵심 성취기준의 주요 항목과 기존 초등학생 금융이해력 지수 측정한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문항 매칭한 후 수정하여 사용
 - (금융생활 실태) FGI 결과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이 문항 작성하고 관련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
- (조사 내용의 구성) 크게 세 부분(금융이해력, 금융생활실태, 응답자 특성)으로 구성

표 1. 조사 내용의 구성

구분	구성 문항	
	초등	중·고등
금융이해력	금융지식 ①신용관리 ②금융회사의 성격 ③소득종류 ④저축 습관 ⑤적금하기 적절한 금융회사 ⑥지출의 우선순위 ⑦미래 위험 대비 ⑧개인정보 보호	①주관적 금융지식 수준 ②인플레이션과 구매력 ③이자개념의 이해 ④단리 계산 ⑤복리개념의 이해 ⑥위험과 수익간의 관계 ⑦인플레이션의 의미 ⑧분산 투자 개념
	금융행위 ①예산(용돈)관리 ②적극적인 저축활동 ③신중한 구매 ④청구대금 적기 지급 ⑤평소 재무상황 점검 ⑥장기 재무목표 설정	①예산(용돈)관리 ②적극적인 저축활동 ③신중한 구매 ④청구대금 적기 지급 ⑤평소 재무상황 점검 ⑥장기 재무목표 설정 ⑦정보에 입각한 금융상품 선택 ⑧적자 해소
	금융태도 ①저축보다 소비 선호 ②미래보다 현재 선호 ③돈은 쓰기위해 존재	
금융생활 실태	용돈 및 수입활동 현재 용돈 받는지 여부	①현재 용돈 받는지 여부 ②수입 활동 여부
	금융상품/서비스 이용경험 ①금융상품 가입 여부 ②체크카드 사용 여부 ③부모님 카드 사용 여부 ④선불충전방식 카드 사용 여부	
	금융교육경험 ①가정에서의 금융교육 ②학교에서의 금융교육 ③학교 이외의 곳에서 금융교육	①가정에서의 금융교육 ②학교에서의 금융교육 ③학교 이외의 곳에서 금융교육 ④금융정보 활동

구분		구성 문항	
		초등	중·고등
	금융피해경험	-	불법금융행위
	돈에 대한 인식 및 금융웰빙	①돈에 대한 인지, 감정, 행동 ②돈 빌리기	①돈에 대한 인지, 감정, 행동 ②돈 빌리기 및 경제적 지원 ③금융 웰빙
응답자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	①출생년도. ②성별	①출생년도. ②성별, ③금융 관련 자격증 ④학업성적
	부모·가족특성	①함께 살고 있는 가족, ③부모님 중 금융업 종사 유무	②부모님 직업 유무 ④보호자 최종 학력

6. 기초분석 주요 결과 : 금융이해력 수준과 실태의 양상은 어떠한가?

○ (금융이해력 수준 주요 결과 : 기초통계분석 및 차이 검증 t-test, GLM-test)

❶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고, 현재 소비에 대한 선호 강함.

* 동일 학교급 내 학년 간 점수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수가 높은 경향성은 일관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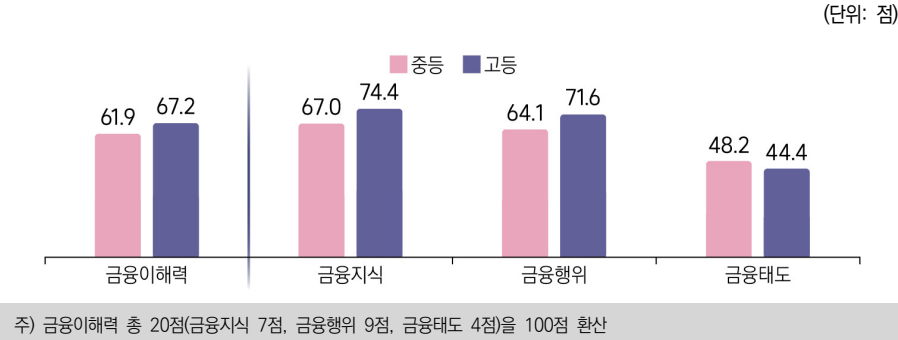


그림 4. 중·고생 금융이해력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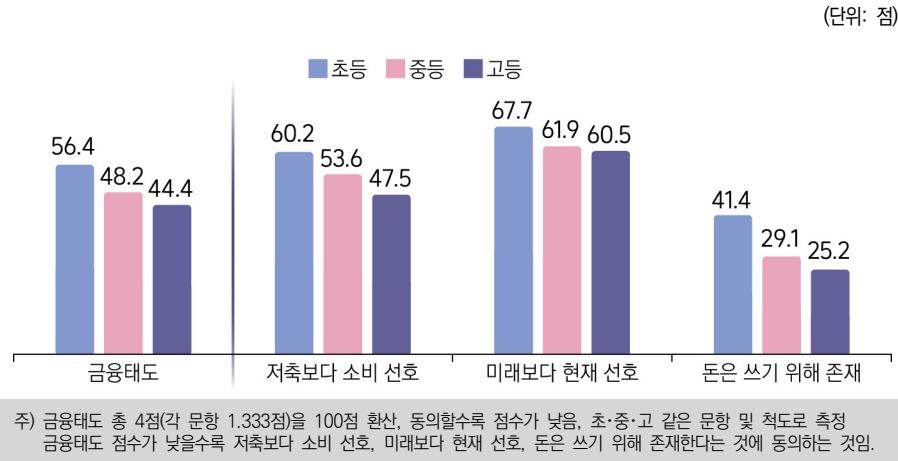


그림 5. 금융태도 측정 항목 점수 : 초·중·고 비교

- ② 100점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2022년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18세~79세 대상)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성인 전체 평균(65.8점) 및 20대 청년 평균(65.8점) 보다 높은 수준임.

* 상대적으로 보편화된 디지털 금융생활 등의 영향이 금융행위 점수에 영향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표 2. 중·고등학생 금융이해력 점수 : 성인 및 20대 청년과 비교

(단위: 점)

구분	본 연구 결과		‘22 전 국민 금융이해력조사 결과*	
	중학생	고등학생	20대 청년	성인 전체 평균 (18세~79세)
금융이해력	61.9	67.2	65.8	66.5
금융지식	67.0	74.4	74.9	75.5
금융행위	64.1	71.6	66.2	65.8
금융태도	44.4	48.2	48.9	52.4

주) 금융이해력 총 20점(금융지식 7점, 금융행위 9점, 금융태도 4점)을 100점 환산
금융태도 점수가 낮을수록 저축보다 소비 선호, 미래보다 현재 선호, 돈은 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임.

*출처: 한국은행·금융감독원(2023.03.30.), 「2022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p.14.

《관련 실태조사 결과》

- 직접 가입한 금융상품 보유율

보통예금 계좌 - 초등생 8.0%, 중학생 29.3%, 고교생 51.6%

정기적금/예금 계좌 - 초등생 3.5%, 중학생 6.7%, 고교생 12.8%

주식계좌 - 초등생 2.1%, 중학생 3.3%, 고교생 5.5%

가상화폐 계좌 - 초등생 0.5%, 중학생 1.0%, 고교생 2.2%

음원 등 저작권 투자계좌 - 초등생 0.9%, 중학생 2.1%, 고교생 2.8%

- 체크카드 사용

사용율 - 초등생 36.4%, 중학생 67.2%, 고교생 85.9%

내 명의 카드만 사용 - 초등생 14.5%, 중학생 45.6%, 고교생 65.4%

자신 명의의 카드 첫 사용 시기 - 학교급이 낮을수록 시기가 앞당겨짐.

- 선불충전방식 청소년 전용카드 사용

사용율 - 초등생 15.6%, 중학생 54.3%, 고교생 63.5%

사용하게 된 사유 - 초등생(주위 친구들 사용 80.8%, 편리한 기능 40.9%)

- 중학생(주위 친구들 사용 23.1%, 편리한 기능 43.7%, 가입용이 18.1%)

- 고교생(주위 친구들 사용 17.5%, 편리한 기능 42.2%, 가입용이 27.8%)

- 학교에서의 금융교육 경험

경험률 - 초등생 37.5%, 중학생 33.9%, 고교생 38.9%

- 가정이나 학교 이외에서의 금융교육 경험

경험률 - 초등생 22.5%, 중학생 5.5%, 고교생 6.0%

- 스스로 금융정보를 찾아보는 활동

경험률 - 중학생 24.9%, 고교생 37.6%

- 불법금융행위 경험

경험률 - 중학생 12.1%, 고교생 13.6%

경험 유형 - 휴대폰 결제강 (중학생 5.8%, 고교생 6.3%)

- 폰테크 (중학생 4.8%, 고교생 7.6%)

- 소액 대출 (중학생 5.5%, 고교생 5.4%)

- ③ 금융지식 측정 항목 중, 초등학생은 ‘금융회사의 성격과 기능’, 중·고등학생은 ‘복리 이해’ 점수가 가장 낮음.

* 고등학생의 ‘복리 이해’ 점수는 성인 전체 평균 및 20대 청년보다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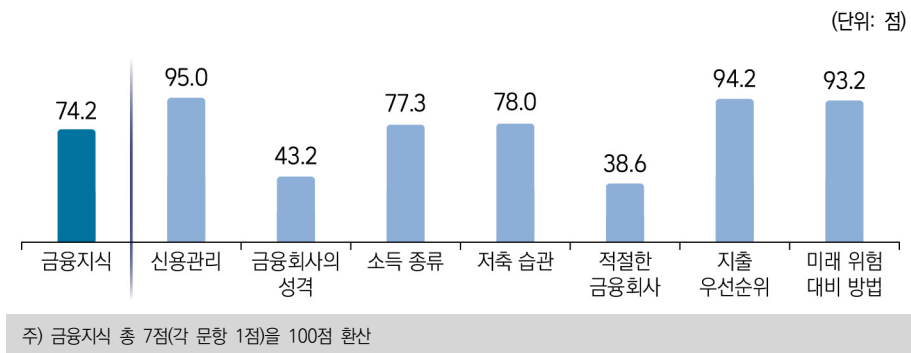


그림 6. 초등학생 금융지식 측정 항목별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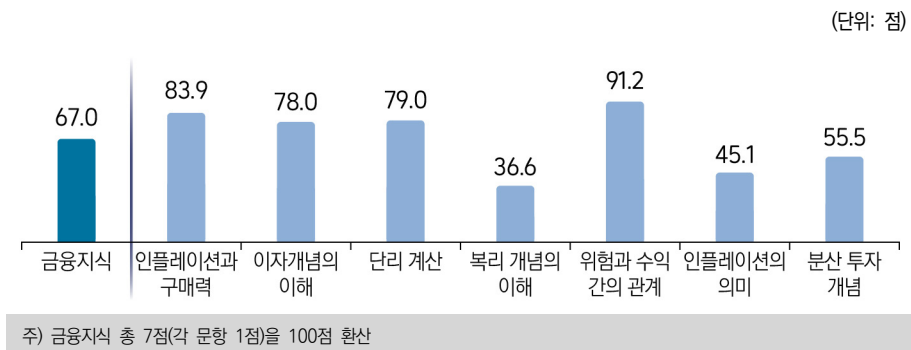


그림 7. 중학생 금융지식 측정 항목별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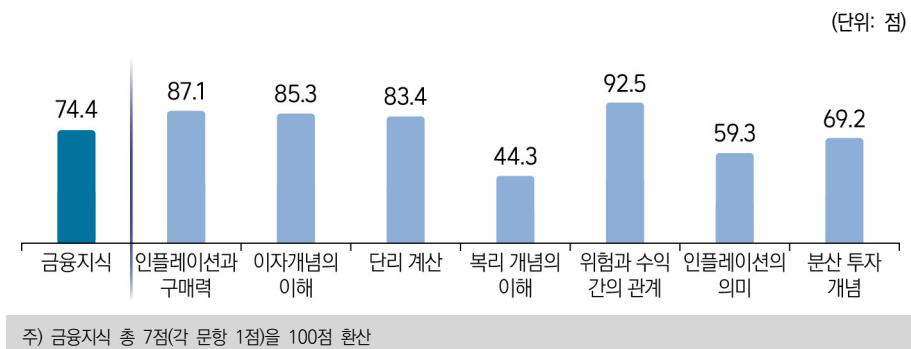


그림 8. 고등학생 금융지식 측정 항목별 점수

표 3. 금융지식 측정 문항 중 가장 낮은 점수 항목: 복리 개념의 이해 점수 비교

(단위: 점)

구분	본 연구 결과		'22 전 국민 금융이해력조사 결과*	
	중학생	고등학생	20대 청년	성인 전체 평균 (18세~79세)
복리개념의 이해	36.6	44.3	41.4	39.1

주) 제4장 [그림 IV-18] 재구성

*출처: 한국은행·금융감독원(2023.03.30.), 「2022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p.14

- ④ 초·중·고생 금융이해력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공통된 특성은 부모의 학력
 - * 초·중생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공통 특성은 ‘학년’과 ‘부모 학력’, 중·고생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공통 특성은 ‘주관적 학업성취 수준’과 ‘부모 학력’
- ⑤ 금융생활실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공통 특성은 ①용돈 저축 여부, ②직접 가입한 예/적금 유무, ③부모의 금융교육 수준, ④금융정보활동 경험 유무, ④돈에 대한 행동적 차원의 인식, ⑤부정적 돈 사용 태도
 - * ‘부모의 금융교육 수준’ 7개 항목 4점 척도 측정(1.내가 용돈을 어디에 쓰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용돈 사용에 관한 의견을 말씀하신다, 2.용돈 관리 방법과 아껴 써야 하는 이유나 방법을 알려주신다, 3.저축 방법을 설명하거나 은행에 데려가 계좌를 만들어 주신 적이 있다, 4.주식 투자에 대해 설명하거나 증권사에 데려가 주식계좌를 만들어 주신 적이 있다, 5.나와 함께 주식계좌를 관리하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6.금융기관이나 지역센터에서 주최하는 금융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하거나 함께 참여한다, 7.경제뉴스나 금융 관련 이슈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
 - * ‘돈에 대한 행동적 차원’ 2개 항목 4점 척도 측정(1.돈 관리를 잘한다, 2.돈을 매우 신중하게 사용한다)
 - * ‘부정적 돈 사용 태도’ 6개 항목 4점 척도 측정(초·중·고 공통 3개 항목: 1.친구들에게 자주 돈을 빌린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도 있다, 2.돈 빌리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3.중·고생 부모님 돈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추가 3개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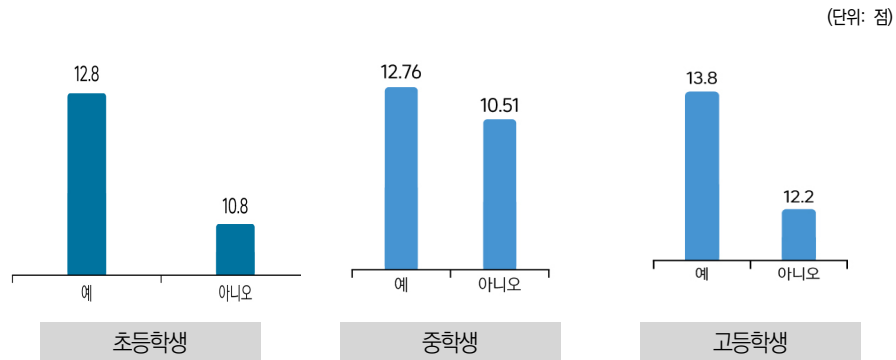


그림 9. 용돈 저축 여부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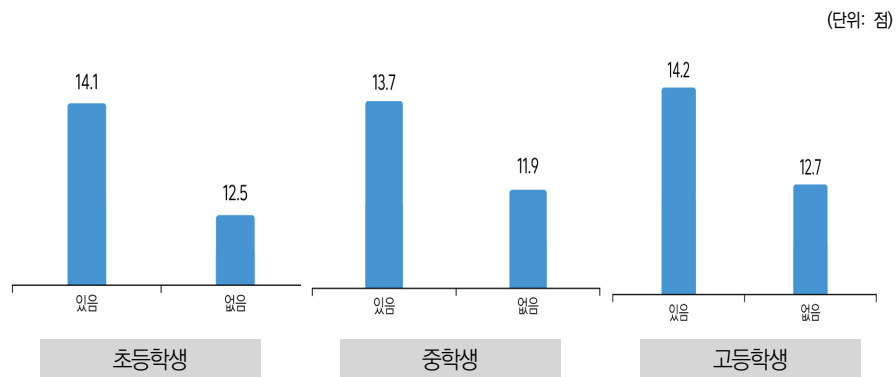


그림 10. 직접 가입한 예/적금 유무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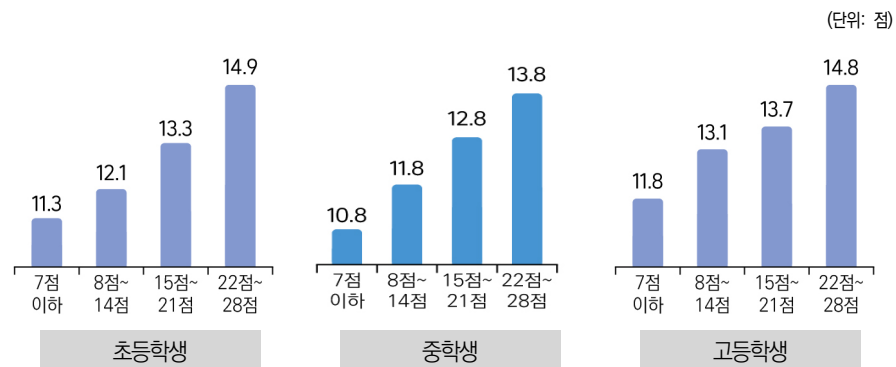


그림 11. 부모의 금융교육 수준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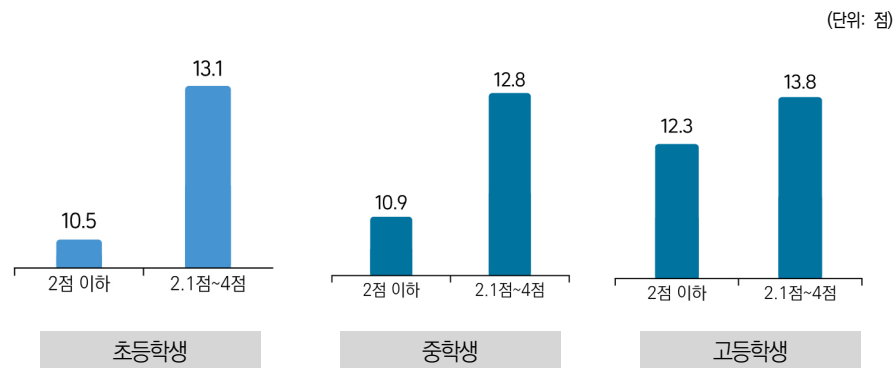


그림 12. 돈에 대한 행동적 차원 인식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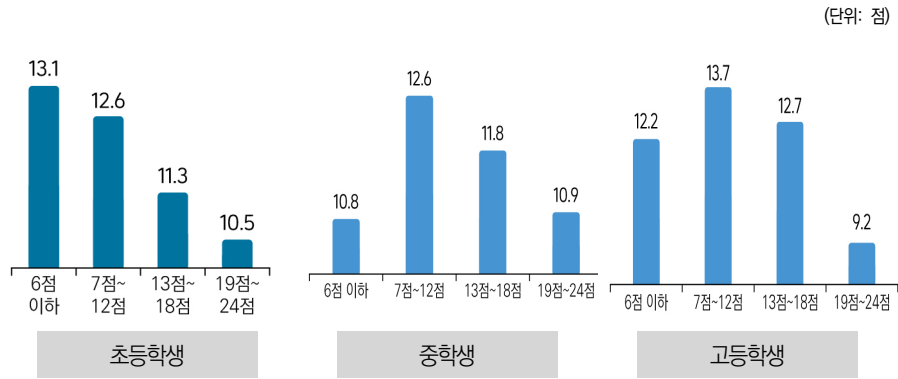


그림 13. 부정적 돈 사용 태도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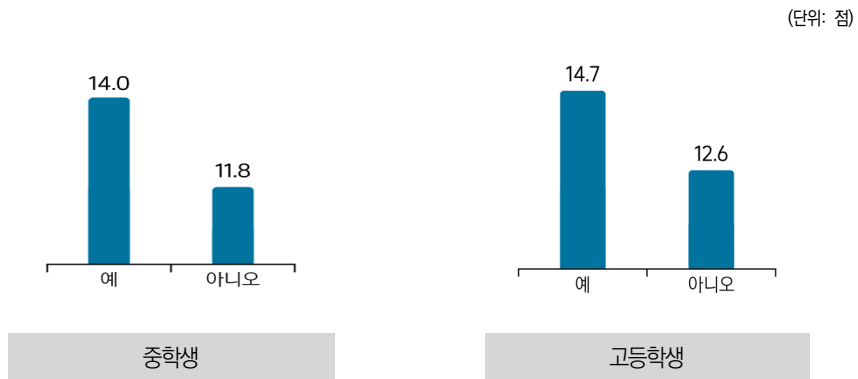


그림 14. 금융정보 활동 여부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 : 중 · 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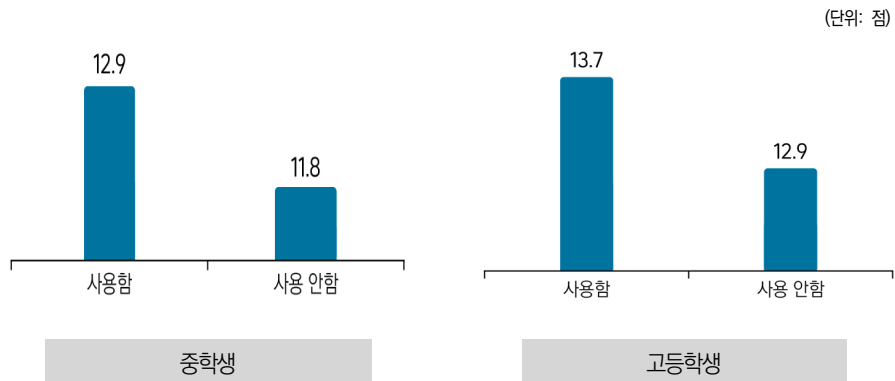


그림 15. 선불 충전 방식 청소년 전용 카드 사용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 : 중 · 고생

7. 실증모델 분석 : 어떠한 요인이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나?

○ (2가지 분석 모델 선정)

- 초 · 중 · 고생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이해력 총 점수를 종속변수로 모델분석 실시

- OLS 모델의 기본 가정 중 하나인, 오차항의 이분산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Robust OLS Model 선정
- 개인 특성 및 금융생활 실태에 따라 동일 학교급 내 금융이해력 점수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기초 통계분석 결과를 고려, 금융이해력 점수 분포를 3개 분위(하위 10%, 50%, 상위 10%)로 나누고, 각 분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위회귀모델(Quantile Regression Model)로 분석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확보함.

○ (주요 발견 I: Robust OLS Model)

- ① 초·중·고생 금융이해력 수준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4가지(+ 영향 : 용돈 저축, 부모의 금융교육 총점수, 돈에 대한 행동차원 인식 점수, - 영향 : 부정적 돈 사용 태도 및 인식 점수)
- ② 초·중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2가지(+ : 학년, 학교 금융교육 경험)
- ③ 중·고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5가지(+ : 주관적 학업성취 수준, 정기적으로 받는 용돈, 내 명의 체크카드만 사용, 선불충전방식 청소년 전용카드 사용, 스스로 금융정보 찾아보는 활동 유무)
- ④ 고교생의 금융이해력 수준 격차의 주요 원인은 특성화고교(-), 관련 교과목 금융교육 활동 수업 경험(+), 용돈 외 수입활동(아르바이트, 부모일 도움, 가진 것 판매/거래 경험) 경험 유무(+)
- ⑤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요인은 돈에 대한 행동 차원이 인식 점수, 부모의 금융교육 총점수,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는 활동이며, 학교급에 따라 변화 양상이 나타남.

표 4. 초·중·고생 금융이해력 수준 영향 요인의 영향력 순위 비교

(단위: 점)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순위	돈에 대한 행동차원 인식	돈에 대한 행동차원 인식	스스로 금융정보 찾아보는 활동
2순위	부모 금융교육 총 점수	스스로 금융정보 찾아보는 활동	정기적인 용돈
3순위	부정적 돈 사용 태도	주관적 학업성취 수준	돈에 대한 행동차원 인식
4순위	용돈 저축 여부	선불충전방식 청소년전용카드 사용	부정적 돈 사용 태도

주) 본 연구보고서 제5장 [그림 V-1], [그림 V-5], [그림V-9] 재구성

○ (주요 발견 II: Quantile Regression Model)

- ① 초·중·고생 금융이해력 점수로 나눈 3개 분위 모두에서 영향력을 갖는 공통 요인은 2가지로 (+ : 돈에 대한 행동 차원의 인식 점수, - : 부정적 돈 사용 태도 점수)
- ② 성별(-)과 학교 금융교육 경험(+)은 초·중생의 50%와 하위 10% 분위에서만 영향력이 나타남.

- ③ 중·고생의 주관적 학업성취 수준, 용돈 외 수입활동으로 가진 것 판매/거래, 내 체크카드만 사용, 선불충전방식 청소년 전용카드 사용, 스스로 금융정보 찾아보는 활동은 금융이해력 점수 50% 이상 분위에만 영향(+) 미침.
- ④ 특성화고(-), 돈에 대한 인지적 측면의 점수(+), 정기적인 용돈(+), 관련 교과목 활동수업 형태의 학교 금융교육 경험(+)은 고교생의 금융이해력 점수 모든 분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8. 결과의 함의 및 정책 개입 방향 : 결과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 (정책측면에서의 함의)

- ① 본 연구의 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초·중·고 학교급 동시에 금융이해력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데이터 확보(esp. ‘전 국민 금융이해력조사’ 도구를 활용한 중·고생 측정 자료 확보로 10대를 포함한 주기적 국가승인통계 구축 가능성 확인)
- ② 분위회귀모델 분석을 통해 금융이해력 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효과성 있게 동원되어야 하는 정책 수단에 차이가 있어야 하고, 기존 개발 또는 적용되었던 정책도구들이 어떠한 집단을 표적화(targeting)해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개입해야 효과적인가를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 제공
- ③ 초·중·고생 금융이해력을 높이는 영향 요인을 종합하여 그 결과가 갖는 의미를 하나로 묶는다면, 청소년들이 용돈의 지출관리 및 저축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고, 생활습관을 통해 스스로가 돈 관리를 잘하고 신중하게 사용한다고 행동차원의 인식을 하고 실천하는 것이 금융이해력을 갖는데 기본이며, 그러한 인식 및 생활습관 형성 과정에 핵심 기제가 되는 것이 “부모의 금융교육”. 따라서 청소년 금융이해력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자 수단으로서 학부모가 금융교육 범위 안에 포함되어야 함.
- ④ 초·중·고생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 요인을 종합해 보면, 뚜렷하게 발견되는 하나의 흐름이 연령 발달(학교급)에 따라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중학생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달라진다는 점. 부모의 금융교육의 영향력은 중학교 시기에 약화되고, 스스로 금융정보를 찾아보는 활동이 중학생 시기에 두 번째로 높은 영향력을 갖는 요인으로 등장하였다가 고등학생 시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이 됨. ⇒ 이는 초등학생 금융이해력을 높이는데 부모 금융교육 중심이 되고, 중학생부터 자기 주도적 금융정보 탐색 및 학습이 부모 금융교육과 병행, 고등학생 시기에는 자기 주도적 정보 탐색과 학습이 주도되는 방식으로 정책 수립 필요
- ⑤ 중·고생의 자기 주도적 금융정보의 탐색과 학습이 모든 중·고생에 적용될 수 없고, 금융이해력 수준이 50%(중간) 이상이 집단에서만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학교급뿐만 아니라, 동일

학교급 내에서의 이해력 수준 격차 고려가 필요. 또한 부모 학력으로 대리될 수 있는 가정 배경, 거주지역, 고교유형 등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격차(disparity)를 고려한 정책 수립 필요.

9. 실증결과에 기초한 정책제언 : 국가정책으로 어떠한 것이 추진되어야 하나?

○ (정책 목표의 설정)

- 본 연구의 시작점이자 결론은 청소년 금융교육의 필요가 금융이해력 증진에 있으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생애 금융웰빙을 실현하는 기초 역량이 되어야 한다는 데 있음.
-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증진을 통한 생애 금융웰빙 실현의 기본 역량 강화**”로 설정

○ (정책 추진의 세 가지 방향 및 전략)

- 설정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정책 함의에 기초한 세 가지 정책 추진 방향과 그에 따른 전략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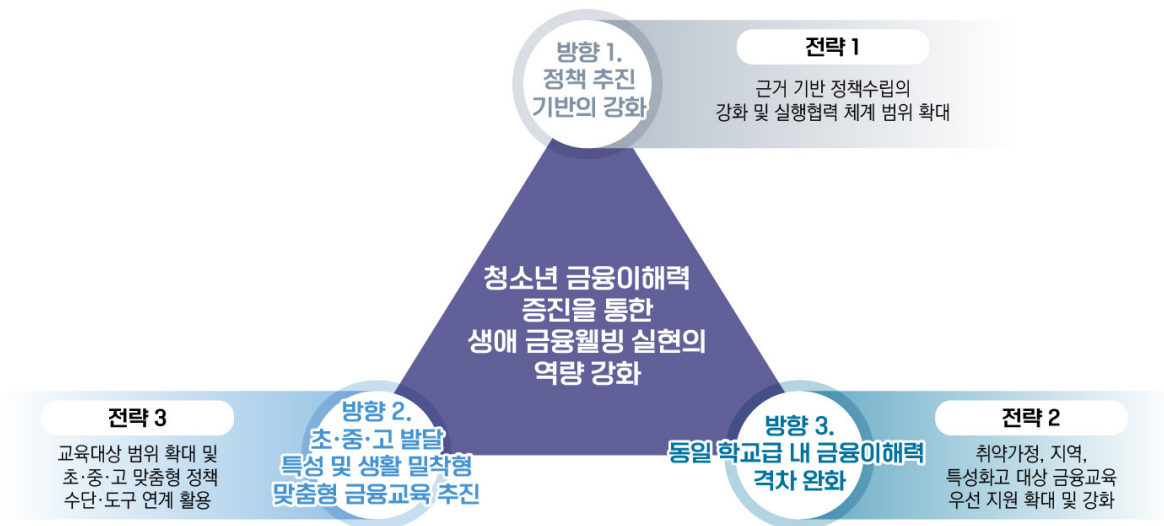


그림 16. 정책 추진의 3가지 방향

○ (정책 추진의 기본체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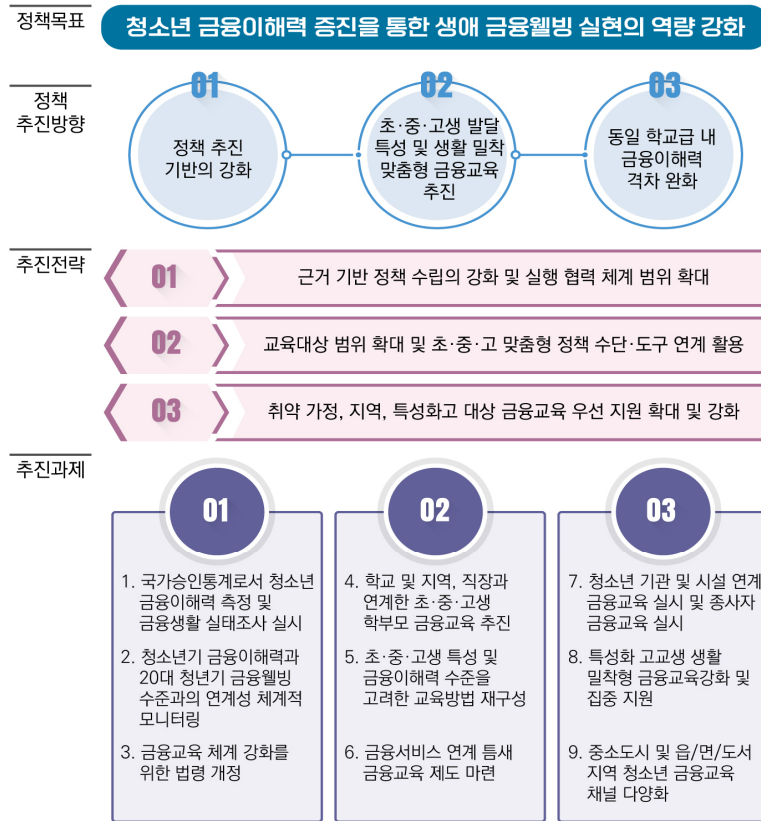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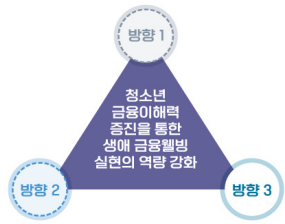
그림 17. 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계획의 기본체계(안)

○ (추진 과제)

① [전략1]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의 강화 및 실행 협력 체계 범위 확대

추진 과제 1		국가승인 통계로서 청소년 금융이해력 측정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 실시	
■ 주요 제안 내용 • 매 2년 실시하는 성인(18세~79세) 대상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청소년까지 조사 대상 확대 - 본 연구의 조사도구를 보완하여 청소년 대상 조사표 마련 - 조사대상 가구 2,400가구에서 최소 5천 가구로 확대 • 매 3년 실시하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금융이해 및 금융생활실태조사 영역 추가 - 본 연구의 조사도구 축약 반영 - 조사대상 가구 5,000가구, 청소년 7천여 명에서 표본 확대		■ 추진 전략	
■ 근거 법령 (또는 계획)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 • 「청소년기본법」 제15조의2제1항		■ 과제 추진 유형	
■ 소관 부처 • 금융위원회, 여성가족부		• 법령 제·개정 ()	
■ 예산 증감 • 증액 필요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추진 체계 • 금융위원회 → 한국은행·금융감독원 '전 국민 금융이해력조사' → 조사 용역 • 여성가족부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		• 신규 사업 도입 () • 제도 및 추진 체계 정비 ()	

② [전략1] 근거기반 정책 수립의 강화 및 실행 협력 체계 범위의 확대

추진 과제 2		청소년기 금융이해력과 20대 청년기 금융웰빙 수준과의 연계성 체계적 모니터링	
■ 주요 제안 내용 •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의 조사대상 범위를 청소년까지 확대한 후, 생애단계 간 연계성(esp. 청소년기 금융이해력 수준과 20대 청년기 금융웰빙 수준, 청소년기 금융교육 효과성 분석)에 대한 체계적 실증분석 추진 • 확보된 정책효과성 실증근거를 토대로 금융교육 정책 평가 및 차년도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모니터링 추진		■ 추진 전략 	
■ 근거 법령 (또는 계획)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 • [2023년 금융교육 추진 방안] - 6. 금융교육 추진 기반 강화	■ 과제 추진 유형	
■ 소관 부처	• 금융위원회	• 법령 제·개정 ()	
■ 예산 증감	• 비해당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추진 체계	• 금융위원회 → 금융교육실무협의체 : 금융연구원 및 협업 기관	• 신규 사업 도입 (○)	
		• 제도 및 추진 체계 정비 ()	

③ [전략1] 근거기반 정책 수립의 강화 및 실행 협력 체계 범위의 확대

추진 과제 3		금융교육 체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 주요 제안 내용 •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의거, 금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과 연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청소년정책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개정 • 금융교육의 실행기반 및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의 연석회의 참석 범위에 청소년정책, 경제교육, 조세교육 등 유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하도록 개정		■ 추진 전략 	
■ 근거 법령 (또는 계획)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	■ 과제 추진 유형	
■ 소관 부처	• 금융위원회	• 법령 제·개정 (○)	
■ 예산 증감	• 비해당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추진 체계	• 금융위원회 → 국회 • 금융위원회 → 금융교육협의회 의결	• 신규 사업 도입 ()	
		• 제도 및 추진 체계 정비 (○)	

표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제안

현행	개정 제안
제30조(금융교육)	제30조(금융교육)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금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과 학교교육·평생교육, 청소년정책과 연계하여 금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2023.10.04. 검색 및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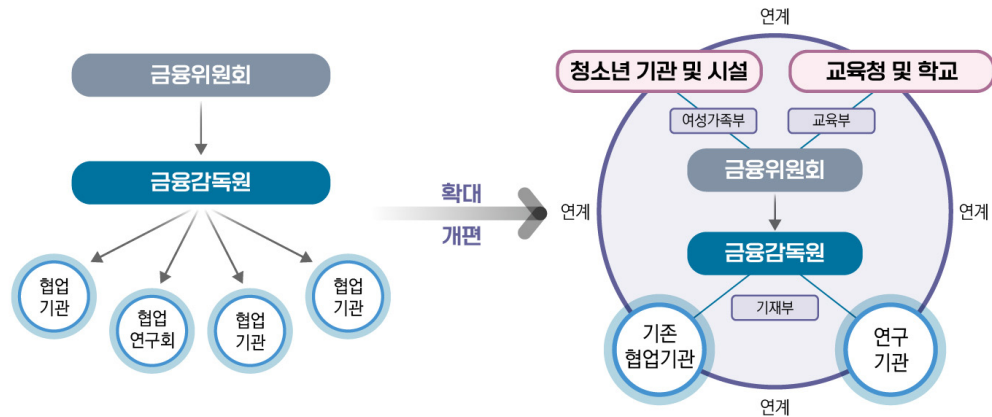


그림 18. 법령 등 개정을 통한 청소년 금융교육 정책 실행 체계 범위 확대 및 강화

④ [전략2] 교육대상 범위 확대 및 초·중·고생 맞춤형 정책 수단·도구 연계 활용

추진 과제 4		학교 및 지역, 직장과 연계한 초·중·고 학부모 금융교육 추진	
■ 주요 제안 내용		■ 추진 전략	
- 초·중·고생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특히 초·중생의 금융이해력을 높이는 가장 기초적인 인식 형성 및 습관형성이 부모의 금융교육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기존 청소년 금융교육의 범위를 청소년에 한정하지 않고, 부모세대로까지 확대 - 금융관계기관, 금융회사, 금융협회를 시작으로 초·중·고 학부모 직원대상 금융교육 실시 - 금융교육협의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관계 행정기관(esp.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교육부)과의 연계협력으로 각 지역의 학부모교육 추진			
■ 근거 법령 (또는 계획)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 과제 추진 유형	
■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 법령 제·개정 ()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신규 사업 도입 (○) - 제도 및 추진 체계 정비 ()	
■ 예산 증감	예산 확보 필요		
■ 추진 체계	- 금융위 → 금융교육협의회 : 관계 행정기관 - 금융위 → 지역금융교육협의회 - 금융위-행안부 → 지자체, 교육청 : 학교-청소년수련관, 가족센터 등 연계		

* 미국의 2세대 접근(Dual-generation approaches to financial education)

- 미국에서는 이미 청소년 금융교육에 대한 2세대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음(학교에서 가족을 초대하는 연례행사 활용, 지역의 종교기관 활용, 방과 후 프로그램과 비영리단체와의 연계로 이루어지는 교육 제공; Anita & Nicole, 2022, p.23-24).
- Anita, E.D., & Nicole, M.E. (2022). Financial Literacy among children. *The Routledge Handbook of Financial Literacy*. The Routledge Handbook of Financial Literacy edited by Gianni Nicolini and Brenda J. Cude. New York: Routle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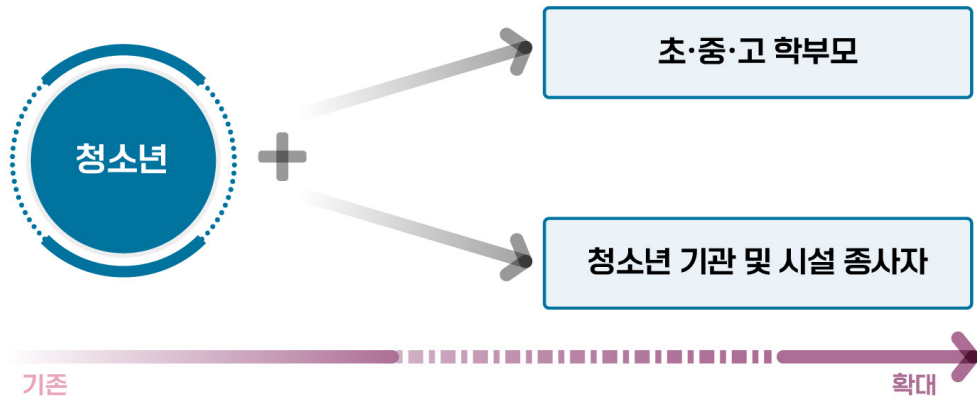


그림 19. 청소년 금융교육 정책 대상자의 확대

⑤ [전략2] 교육대상 범위 확대 및 초·중·고생 맞춤형 정책 수단·도구 연계 활용

추진 과제 5		초·중·고생 특성 및 금융이해력 수준을 고려한 교육방법 재구성 : ‘자기도전포상제’ 활용
■ 주요 제안 내용 • 초·중생 시기에 금융이해력에 부모의 금융교육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중학생 시기부터 자기 주도적 금융정보의 탐색과 활동 경험이 영향 요인으로 등장하고, 고등학교 시기에 그 영향력이 강화된다는 본 연구의 실증연구에 비추어 볼 때, 학교 교육만이 아닌 중·고생의 자기 주도적 금융정보 탐색 및 활동 경험을 도울 수 있는 교육방법 필요 • 청소년활동지원정책의 하나로 여성가족부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제7조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자기도전포상제’를 금융교육의 방법으로 연계 활용할 것을 제안		■ 추진 전략
■ 근거 법령 (또는 계획)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제6조, 제7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 소관 부처 • 금융위원회, 여성가족부	■ 과제 추진 유형 • 법령 제·개정 ()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신규 사업 도입 () • 제도 및 추진 체계 정비 ()
■ 예산 증감 • 증액 필요	■ 추진 체계 • 금융위원회 → 금융교육협의회 :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 청소년활동진흥원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청소년기관/시설	

*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Korea Achivement Award)

-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3학년(7세~15세) 청소년들이 활동영역(자기개발, 신체단련, 봉사활동, 탐험활동, 진로개발활동) 중 선택한 4가지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정한 목표를 성취해 가는 자기 성장 프로그램.
- 관계부처(여가부와 금융위원회 등) 협의 필요
- 중학생 대상 적용 적절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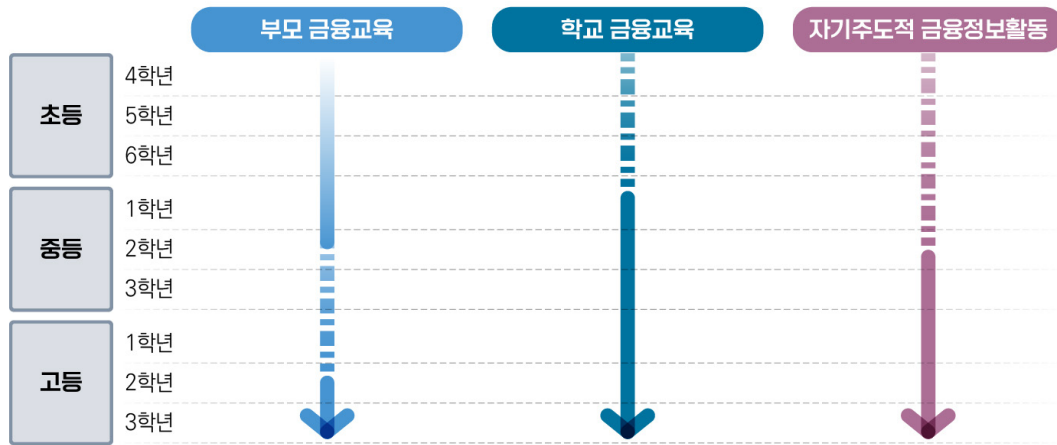


그림 20. 초·중·고생 특성을 고려한 금융교육 정책 수단의 배치

⑥ [전략2] 교육대상 범위 확대 및 초·중·고생 맞춤형 정책 수단·도구 연계 활용

추진 과제 6		금융서비스 연계 틈새 금융교육 지원 제도 마련	
■ 주요 제안 내용		■ 추진 전략	
• 청소년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 경험의 범위가 좁지 않으며, 디지털 금융상품의 개발·발전으로 금융서비스 이용률 또한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이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만큼,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과 연계된 금융교육 필요 •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체크카드 및 선불충전방식 청소년전용카드 가입·신청 단계와 이후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플리케이션에 교육정보 제공 등을 각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근거 법령 (또는 계획)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5항	■ 과제 추진 유형	
■ 소관 부처	• 금융위원회	• 법령 제·개정 ()	
■ 예산 증감	• 비해당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추진 체계	• 금융위원회 → 금감원 → 각 금융기관	• 신규 사업 도입 (○)	
		• 제도 및 추진 체계 정비 ()	

* 미국의 연구에서는 실제 생활에서의 금융상품을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상의 체험과 금융 교육이 적시(in-time)에 결합 되어 이루어졌을 때, 금융교육의 효과는 커지는 것으로 보고된다(Fernandes, Lynch, & Netemeyer, 2014; Anita & Nicole, 2022, p.24에서 재인용).

* 토스 은행의 경우, ‘Youth’카드를 7세~17세까지 대상으로 발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0대 청소년 이용자들의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식, 예컨대 ‘그냥 통장, 적금, 예금의 차이점은?’, ‘안심하고 중고거래하기’와 같은 내용을 제공

⑦ [전략3] 취약가정, 지역 특성화고 금융교육 우선 지원 및 확대·강화

추진 과제 7		청소년 기관 및 시설연계 금융교육 실시 및 종사자 금융교육 실시
■ 주요 제안 내용 - 가정에서 부모의 금융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이 필요하며, 이것이 성인기 금융웰빙의 격차를 확대시키지 않는 방안으로 적극 고려되어야 함. - 전국 17개 시·도, 342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의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5일~6일 1일 4시간 이상, 학습과 활동, 생활지도가 이루어지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용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실시 - 일상에서 청소년을 지도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종사자 연수 제도를 활용하여 추진		■ 추진 전략 
■ 근거 법령 (또는 계획)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 「청소년 기본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 과제 추진 유형 - 법령 제·개정 ()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신규 사업 도입 (○) - 제도 및 추진 체계 정비 ()
■ 소관 부처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 예산 증감 비해당		
■ 추진 체계 - 금융위원회 → 금융교육협의회 :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지도자 양성사업 → 전문연수과정 활용		

⑧ [전략3] 취약가정, 지역 특성화고 금융교육 우선 지원 및 확대·강화

추진 과제 8		특성화고교생 생활밀착형 금융교육 강화 및 집중 지원
■ 주요 제안 내용 - 특성화고교 재학생이 금융이해력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금융이해력 점수 분위에서 일반/자율/특목고 재학생에 비해 낮다는 사실이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되었음. - 상대적으로 이르게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진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생활에 있어 의사결정기술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특성화고교 재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낮은 데 대한 대응 필요 - 관련 교과와 활동수업이 고교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높이는 요인인 만큼 특성화고교생의 생활 및 특성을 고려한 금융교육 집중 지원		■ 추진 전략 
■ 근거 법령 (또는 계획)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2023년 금융교육 추진 방안] 1. 아동·청소년: 정규 교과수업 외 교육활동 통한 교육 실시		■ 과제 추진 유형 - 법령 제·개정 ()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신규 사업 도입 () - 제도 및 추진 체계 정비 ()
■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교육부		
■ 예산 증감 증액 필요		
■ 추진 체계 - 금융위원회 → 금감원 → 협업기관 - 금융위원회 → 금융교육협의회 : 교육부(교육청 협조) → 지역금융교육협의회 → 특성화고교		

⑨ [전략3] 취약가정, 지역 특성화고 금융교육 우선 지원 및 확대·강화

추진 과제 9		중소도시 및 읍/면/도서지역 청소년 금융교육 채널 다양화
■ 주요 제안 내용 • 동일 학교급 내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의 격차가 '지역'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음을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통해 포착 • 기 수립된 청소년 금융교육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을 고려한 정책과제는 부재하였으나, 금융지식 측면에서 초·중생의 점수가 서울/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결과는 지역이라는 공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교육의 격차발생에 대응해야 하는 시점임을 의미 • 지역 격차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 지역 거주 청소년들을 위한 금융교육 채널의 다양화를 제안함.		■ 추진 전략 
■ 근거 법령 (또는 계획)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 과제 추진 유형
■ 소관 부처 •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 법령 제·개정 ()
■ 예산 증감 • 증액 필요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추진 체계 • 금융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협의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출판산업진흥원 → 인문정신 확산 사업		• 신규 사업 도입 (○) • 제도 및 추진 체계 정비 ()

* 관계 부처(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협의 필요

표 -6. 정책 추진 과제 요약

추진 과제	과제 추진 유형	근거 법령	추진 기간 ^{주)}	소관 및 관계 부처
	①법령 제·개정 ②기존 사업 보완·확대 ③신규 사업 도입 ④제도·추진업무정비	①있음 ②개정 필요 ③제정 필요 ④없음	①단기 ②중기 ③장기	각 중앙부처 및 지자체
① 정책 추진기반의 강화 → [전략①] 근거기반 정책수립의 강화 및 실행협력 체계 범위 확대				
1. 국가승인통계로서 청소년 금융이해력 측정 및 금융생활실태조사 실시	②	①	①, ②	금융위원회 여성가족부
2. 청소년기 금융이해력과 20대 청년기 금융웰빙 수준과의 연계성 체계적 모니터링	②, ③	④	①, ③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3. 금융교육 체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①, ④	①	①, ②	금융위원회 여성가족부
② 초·중·고생 발달 특성 및 생활 밀착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 → [전략②] 교육대상 범위 확대 및 초·중·고 맞춤형 정책 수단·도구 연계 활용				
4. 학교 및 지역, 직장 등 연계한 초·중·고 학부모 금융교육 추진	③	①	①, ②	금융위원회 여성가족부
5. 초·중·고생 특성 및 금융이해력 수준을 고려한 교육방법 재구성: '자기도전포상제' 활용	②	①	①	금융위원회 여성가족부
6. 금융서비스 연계 틈새 금융교육 지원 제도 마련	②, ③	④	②	금융위원회
③ 동일 학교급 내 금융이해력 격차 완화 → [전략③] 취약가정, 지역, 특성화고 대상 금융교육 우선지원 확대 및 강화				
7. 청소년 기관 및 시설 연계 금융교육 실시 및 종사자 금융교육 실시	②, ③	①	①, ②	금융위원회 여성가족부 지자체
8. 특성화 고교생 생활밀착형 금융교육 강화 및 집중 지원	②	①	①, ②	금융위원회 교육부 교육청
9. 중·소도시 및 읍/면/도서지역 청소년 금융교육 채널 다양화	②, ③	①	①, ②	금융위원회 교육부, 문체부 교육청, 지자체
* 주: 단기(1~2년 이내), 중기(3~5년 내), 장기(5년 이상)				

◎ 보고서 full text 다운로드 가능

- 2023년 연구보고서 “청소년들은 금융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 실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 → 자료 → 연구보고서 → 키워드 ‘금융’ 검색

https://www.nypi.re.kr/brdrr/boardrrList.do?brd_id=BDIDX_PJk7xvf7L096m1g7Phd3YC&menu_nix=4o9771b7

청소년들은 ‘금융’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 실태

연구보고 23-기원01

김지경 · 서정아 · 송현주



토론 1

「청소년들의 금융이해력과 금융생활」 토론문

조혜진

(인천대학교 교수)



2024년 청소년정책포럼

토론 1

「청소년들의 금융이해력과 금융생활」 토론문

조 혜 진 (인천대학교 교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는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선언하고 이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여 전세계적으로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정부 주도로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금융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에 매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금융소비보호법(2018)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및 금융이해력조사 실시를 언급하면서 금융위원회의 금융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금융교육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세워 계획을 수립하고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정부기관과 민간 금융기관들이 다각도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이해력과 실생활에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금융역량은 모든 연령층에 중요하지만 특히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및 금융역량은 미래 사회진출 및 자립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때 바람직한 금융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형성이 향후 경제생활에서 긍정적인 금융생활의 실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므로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금융이해력 수준 및 실태를 이해하고, 금융교육 활동 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본 연구는 2023년 2월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추진과제 중 ‘금융경제분야 청소년교육 실시’가 처음으로 포함된 상황에서 너무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과제를 다루고 있다고 사료된다.

발표해 주신 연구 결과와 정책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이슈와 쟁점 몇 가지를 논의하고 ‘청소년 금융역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 대상 금융이해력과 금융생활실태 조사 연구의 의의와 향후 과제’에 대한 내용이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금융감독원은 전국민금융이해력조사를 2023년에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민금융이해력조사에서는 연령대별로 10대, 20대, 18세 이상 성인 등을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구분하는 현행 교육제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구체적으로 교육제도 상에서 어떠한 학생들이 어떠한 부분의 금융역량이 부족하거나 높은 수준인지 명확하게 측정할 수 없으며 부족한 금융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교육대상에 적절한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우선적으로 청소년 금융이해력 측정 및 금융생활실태 조사가 국가통계자료로 자리매김하여 연속성 있는 연구 결과를 내고 금융교육의 시계열적인 효과성 검증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금융웰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회성 실태조사가 아닌 시계열 자료로의 구축이 필요하며, 정책 통계자료로서 실효성을 얻기 위해 성인 대상 ‘전 국민 금융이해력조사’나 청소년 대상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확대·보완하여 국가승인통계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대한법률’ 일부 개정을 제안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정책 시행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이나 조례 개정 또는 규칙 제정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를 통해 금융교육과 학교교육, 평생교육 및 청소년정책과 연계하여 금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 금융교육의 효과성 확대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연구 결과에서 입증된 ‘부모 금융교육, 금융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사회화의 중요성과 향후 활용방안’에 관한 내용이다. 가정에서 부모와의 금융/재무/경제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할수록 금융이해력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다수 있다.

본래 금융사회화는 소비자사회화의 한 영역으로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금융 지식·태도·기능을 학습하고 내재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금융사회화 연구는 사회학습이론을 기반으로 부모, 학교, 또래 집단, 미디어 등 사회화 대리인이 금융이해력과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Gudmunson & Danes(2011)는 가족금융사회화 모형을 제시하여 가족 간 상호작용 및 관계가 금융사회화와 금융태도, 지식, 역량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재무관리행동과 금융웰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Gutter et al.(2010)는 부모와의 상호작용 즉 금융 관련 대화 정도와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관찰이 대학생의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Grohmann et al.(2015)은 성인 초기(18~21세)의 금융이해력이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금융사회화에 주목하였는데 부모의 금융사회화를 부모 교육으로 측정하여 금융이해력과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도 조선영, 최현자(2023), 조혜진, 최현자(2009), 한지형, 최현자(2013) 등 다양한 연구에서 유사한 결과가 입증된 바 있다.

국내외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역자치단체와 지역금융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부모금융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부모금융교육이 더욱 효과성을 얻을 수 있도록 또한 향후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2회 이상, 또는 집합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과 관련 기관들의 실행 협력 시스템이

체계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청소년 금융교육 정책의 추진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교육협의회 실무협의체’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등 정부출연 연구소 및 학회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 여성가족부, 금융감독원 등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금융교육 정책에 대한 방향 설정과 실제 교육이 더욱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 실행 단계에서 기재부의 경제교육협의회와 금융위의 금융교육협의회 간의 역할 분담 및 정책에 대한 방향성 설정이 조율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기재부의 경제교육협의회, 금감원의 지역금융교육협의회, 지자체, 교육청 등 정책 추진기관의 협력과 체계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담당 부처와 협조부처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금융포용을 위해 취약가정 및 지역 특성화고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금융교육이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확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의 학력이 초·중·고생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미치고, 양부모 가족 초등학생 금융지식 점수가 한부모가족 초등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았다. 경제활동과 사회진출이 빠른 특성화고교 재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일반고 재학생에 비해 낮았고, 중소도시나 읍/면/도서지역 청소년의 금융지식 점수가 낮은 등 지역적으로 금융이해력 수준이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가정환경의 취약성에 따른 청소년기 금융이해력의 격차가 성인기 금융웰빙 수준의 격차로 귀결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취약가정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에 우선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특성화고교생, 중소/읍면도서 지역 학생의 생활 및 특성을 고려한 생활밀착형 금융교육과 금융기관과 지자체, 지역금융교육협의회 등 기존의 금융교육기관의 집중 지원과 협업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1사1교 금융교육을 취약계층과 취약 지역으로 확대하여 찾아가는 금융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역생활문화센터와 협업하여 융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 금융교육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떠한 콘텐츠를 누가,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 금융교육 정책 실행체계의 범위가 확대되고 강화하여 민·관·학의 연계 시스템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을 위해 어떠한 내용의 금융교육을 실시할 것이냐 하는 표준화된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과 금융교육 강사 양성을 위해서는 지역거점대학의 금융소비자교육 담당 학과의 교수, 중고등학교에서 ‘금융과경제생활’ 또는 사회경제 과목을 담당하는 선생님, 지자체-청소년기관 및 가족센터 등이 포함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학계에서 표준화된 청소년 금융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금융교육강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금융기관이 소속된 지역금융교육협의회와 지자체, 청소년기관, 가족센터 등이 표준화된 금융교육을 현장에서 실시하고, 금감원 금융교육협의회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 감독한다면 표준화된 지역별 금융교육, 부모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성가족부, 금융감독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함께하는 ‘청소년 금융역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청소년정책포럼이 향후 관련 기관들의 협업 속에 청소년금융교육 발전과 확산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을 기대한다.

토론 2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금융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

김 나 영

(양정중학교 교사)



2024년 청소년정책포럼

토론 2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금융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

김 나 영 (양정중학교 교사)

“선생님, 저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가상화폐 말이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가상화폐 종류도 많고, 미래에 어떤 게 쓰일지 불확실 하니까.”

“수익을 바라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런 건 아니예요. 중앙집권적 금융시스템이 문제가 많잖아요. 미국발 금융위기도 이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금융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투자하는 거예요.”

몇 년 전 한 학생과 나눈 대화입니다. 투자의 목적이 수익이 아니라는 학생의 대답에, 땀~ 머릿속에서 종이 울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는 꿈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그는 투자를 단순히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아닌, 자신의 꿈과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사회 전반적으로 금융, 특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학교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금기시 되던 시절도 있었지만, 교육 트렌드는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학급경제활동’ 붐이 일어 교실이 하나의 국가가 되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각자 직업을 갖고, 월급을 받고, 세금을 내고, 부동산 거래도 하고, 무역도 하고요. 심지어 이 작은 국가에서는 주식 투자도 이뤄진다. 기업이 학생들이 창업을 하고 회사의 자금을 모으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면 다른 학생들이 나름의 기준을 갖고 투자를 하는 식이지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돈을 벌고, 모으고, 쓰고, 투자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배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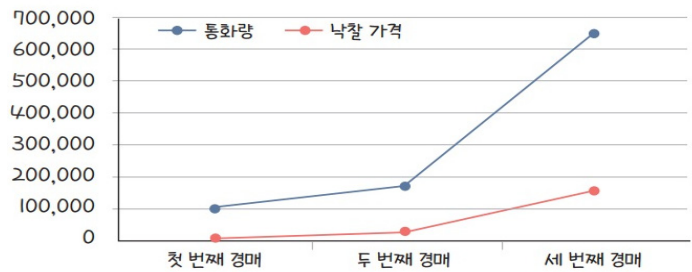
저는 15년째 중학교에서 경제 공부 동아리인 ‘실험경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험경제반은 경제실험을 통해 경제이론을 체득하고, 적용하는 동아리입니다. 실험이라는 건 경제이론이 만들어진 상황을 재연해서, 그 안에서 학생들이 직접 경제주체가 되어 활동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론을 찾아가는 걸 말합니다. 예컨대 저는 한국은행으로 통화를 발행하고, 물품꾸러미를 판매해요. 학생들이

물품꾸러미를 경매를 통해 사는데, 통화량이 많아질수록 낙찰가격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함을 체득하게 되며, 한국은행의 역할도 알게 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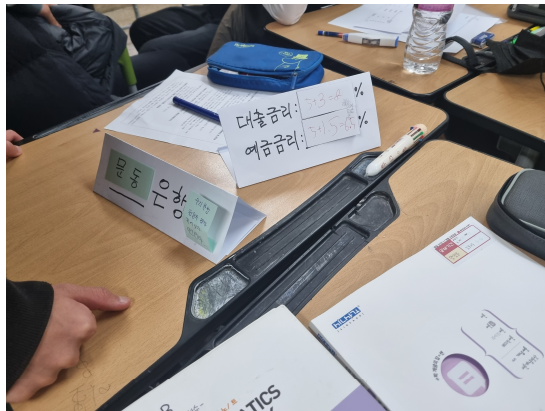
물품꾸러미 경매모습(통화량증가 → 물가상승체험)

물품 꾸러미 경매 결과 그래프



김나영(2022). 세계시민이 된 실험경제반 아이들. 리틀에이

통화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도 실험을 통해 알아봐요. 물가가 너무 올라있을 때, 제가 국채를 발행해서 좋은 조건에 팔아요. 그래서 통화량이 줄어드는 걸 확인하고요.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효과도 실험을 통해 알아봅니다. 먼저 제가 한국은행이 되어 기준금리를 0.25%로 발표해요. 학생들은 모둠별로 가게, 기업, 은행의 역할을 맡아 경제활동을 합니다. 은행은 먼저 기준금리를 참고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정해서 게시해 둡니다.



기준금리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체험을 통해 알아보는 모습

보통 두 모둠 정도가 은행을 하는데, 예금을 하고자 하는 가게나 기업이 두 은행의 금리를 비교해서 의사결정을 하곤해요. 기업은 주식을 발행해서 가게에 팔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요. 그 돈을 가지고 투자(설비투자, 신사업 등이 투자라는 걸 꼭 얘기해줘야 오개념이 생기기 않는 듯합니다.)하는 걸 체험합니다. 분기 수익률은 주사위를 굴려서 정하게 되고요. 보통 이때는 대출금리가 낮아서 기업을

많은 아이들은 신나게 대출하고 많은 금액을 투자합니다. 대출원리금을 갚고,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주기도 수익이 꽤 좋지요. 그 수익률만큼 주가가 올라가도록 설정해두었기에, 이 시기 가계도 금리가 낮은 예금에 돈을 예치하기보다는 주식을 많이 삽니다. 똑같은 활동을 한 번 더 하는데, 이때는 기준금리를 5%로 발표해요. 그럼 상황은 많이 달라지요. 기업들은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대출하기를 꺼리고 가계는 주식을 사기보다는 예금을 많이 하고요. 물론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기업도 있고, 주식을 가계들도 있죠. 그런 경우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아이들은 이 상황에 몰입해서 “아~ 어떡해..” 아쉬워하고 자신들이 기대수익률을 잘못 계산했다며 이야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기준금리변동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경제이론은 너무 어려우니 생활 속 금융만 다루자는 교육계의 의견도 종종 접해요. 하지만 어려우니 가르치지 말자가 아니라 이처럼 모의실험을 통해 자연스레 체험하고 배울 수 있어요. 지속가능한 경제생활을 하려면 재무설계, 자산관리도 해야 하는데 실물 경제흐름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리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15년 전, 실험경제반을 시작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경제이론을 쉽고 재밌게 체득하게 하고 싶었어요. 사례로 제시한 통화량과 인플레이션 실험을 하면 기준금리의 기능도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경제흐름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실험경제반을 운영하며 여러 차례 모의주식투자를 진행해왔다. 모의투자를 통해 수익과 손실을 경험하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분산투자가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음을 체감하게 됩니다. 투자를 통한 소득 중 일부는 세금과 같은 비소비지출로 나가야 한다는 점도 자연스레 알게 되고요. 학생들은 과정을 경험하며 경제 이론을 흡수합니다. 유기적으로 얹혀 작용하는 경제흐름을 읽을 수 있을 때, 미디어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 있고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합리적인 투자는 무엇일까요? 보통은 ‘개인의 지속가능한 경제생활이 가능한 투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교육과정에서도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투자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분산투자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생애주기를 고려해 개인의 지속가능한 경제생활, 경제적 자유를 위해 어떻게 돈을 모으고 투자할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계획을 짭니다.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계산해 보고 단기와 장기 목표를 세우고 돈을 모으고 불리는 시뮬레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은퇴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도 고민해요. 개인의 지속가능한 경제생활을 위해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재무 설계와 투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학교에서 자유롭게 돈에 대해 논하고, 배울 수 있게 된 것은 무척 고무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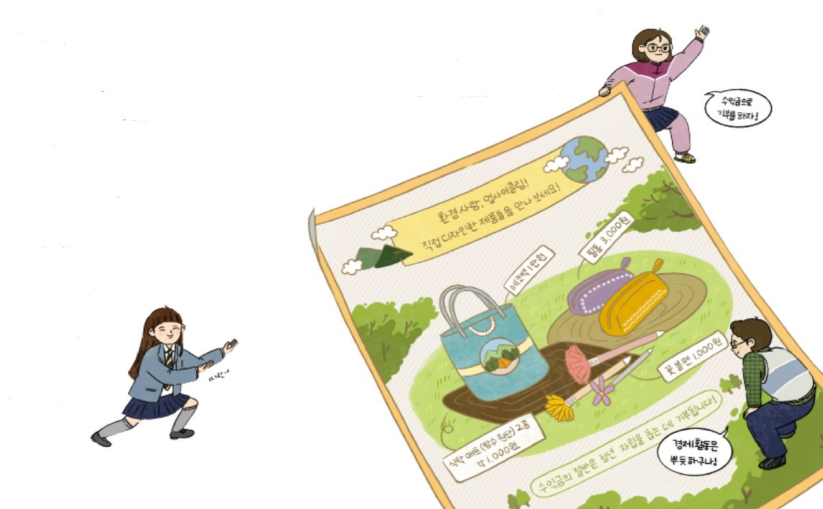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 머리를 땀- 하고 울렸던 제자가 말했던 포인트입니다. 나와 사회가 함께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개인의 지속가능한 경제생활을 위한 교육은 하고 있지만,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생활을 위한 교육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수익성과 안전성을 넘어, 자신이 바라는 사회를 위한 투자를 할 수는 없을까요? 돈을 불리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옳은 가치에 투자하며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투자 말이에요. 학생들과 함께 이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고, 우리는 사회를 생각하는 작은 실천을 해보기로 했다. 업사이클링 상품을 만들어 학교 바자회에서 판매하기로 한 거예요.



제작과정/ 김나영(2022). 최강의 실험경제반 아이들. 리틀에이

우리의 상품은 헌 피케티셔츠를 리폼해 만든 에코백이었어요. 먼저 수요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온라인 카페와 학교 게시판을 활용해 수요자인 친구들과 부모님의 선호 디자인을 투표받고, 또 얼마까지 지불 의향이 있는지 알아봤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생산 비용 보다는 높게, 그렇지만 수요자들의 최대 지불 의향 가격보다는 낮게 최종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는 원리를 알게 됐어요. 거기에 홍보 방법까지도 알게 되었죠. 판매 수익금의 절반은 친환경 기업에 투자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기업의 비전을 살피고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큰 가치를 두고 있는 회사를 투자처로 선정했습니다. 회사의 비전과 가치를 살펴 투자하니 해당 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수익이 얼마 이상 나면 팔아서 차익을 실현한다는 생각을 넘어 진정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와 함께 사회가 건전한 방향으로 성장해가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투자를 하고 남은 판매 수익금의 절반은 환경단체에 기부했어요. 우리는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무엇을 생산할지 가격을 얼마로 해야 이익을 낼 수 있을지 고려해서, 생산해서 팔아 돈을 벌고, 투자도 하고 기부도 한 셈입니다.



김나영(2022). 세계시민이 된 실험경제반 아이들. 리틀에이



직접 헌 폴로티셔츠로 만든 가방

어쩌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의 주식을 샀다가, 주가가 올랐을 때 파는 행동이 단기적으로 개인에게 이득이 될 수 있을거예요. 하지만 모든 개인들이 이렇게 행동한다면,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해가기 힘들 수 있어요.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옳은 가치의 비전을 가진 기업이 잘 성장하도록 돕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오로지 단기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보다는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회사와 사회를 모두 위하는 기업. 또, 내 꿈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주고, 함께 성장해나가는 게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경제생활을 안겨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단기적 관점에서 개인의 이득만을 추구할 때, 사회 전체적으로는 좋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잖아요.

금융시장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환경도 그렇지요. 개인적으로 편리한 선택을 하다 보면, 우리 환경은 유지되지 힘들 거예요. 단기적으로 개인에게 유리한 선택도 중요하지만, 사회도 함께 고려하는 마음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음 보면 가상화폐 투자는 실질적인 경제생활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단지 투기일 뿐이라고, 튜립버블에 빗대어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몇 천 퍼센트의 수익률을 바라고 너도나도 가상화폐 매매에 열을 올린 사람들의 모습과 한순간에 가치가 사라져 버린 상황. 이는 분명 어리석은 튜립버블의 모습이기에,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한 느낌이라 안타깝습니다. 제자 말대로 금융시스템을 건전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투자가 될 수는 없을까요? 블록체인이라는 혁신적 기술을 이용해 중앙집권화된 금융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이에요. 수익성과 안전성을 넘어 옳은 가치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넘어 모두를 위한 경제적 자유, 지속가능한 경제가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토론 3

청소년들의 “금융”에 대해 우리 사회가 바라는 궁극적인 그 무엇(목적)

황 선 하

(아자스쿨 대표)



2024년 청소년정책포럼

토론 3

청소년들의 “금융”에 대해 우리 사회가 바라는 궁극적인 그 무엇(목적)

황 선 하 (아자스쿨 대표)

1. 현상에 대한 이해

시대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된 네이버, 카카오, 비트코인, 당근, 틱톡, 토스, 알바몬, 배달의민족, 게임과 미디어, 인구감소, 고령화, 최저임금 등 다양한 여러 사회적 요인으로 청소년들의 실물경제 노출증가와 이로 인한 부작용도 늘어나고 있음.

○ 실물 경제에서 청소년들의 활동

- 용돈의 증가 : 초등(3.4만 원), 중학생(4.7만 원), 고등학생(8.5만 원)
-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 : 29.6% (OECD 평균 47.5%)
 - 10대 알바 지원량은 4년 전 2019년보다 114% 증가(한국경제)
 - 경제활동의 주목적 : 용돈부족(46%), 사회경험(19.9%), 가정형편(14.4%)
 - 청소년 주요 경제 활동 분야 : 서비스업(38.8%), 도소매업(13.3%)
- 10대 청소년 온라인 쇼핑 이용율 : 58%
- 10대 청소년 주식 계좌 : 326만 개 (3년새 370% 증가)

○ 실물 경제에서 청소년들의 금융 피해

- 10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 4009건(2020년) → 6196건(2022년)
-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자의 31%가 10대 청소년

○ 주제발표 내 청소년 금융 경제 현황

- 금융상품, 선불카드, 투자활동, 리세일, 소액대출 등
- 투자활동, 주식투자, 가상화폐, 음원투자 등

2. 청소년들이 원하는, 그리고 필요한 “금융”은 무엇인가?

청소년이라는 집단 또한 내부 다양한 계층과 그룹을 형성하고 있어서 이를 보편적 청소년으로

보고, “금융”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제공하기보다 연령별, 경제계층별, 가정의 형태별(다문화, 한부모, 북한이탈 등) 교육의 목적과 형태가 달라져야 소위 수요자 중심 “금융” 이해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연령별

- 초등학생 : 소비 습관, 금융 기초 지식, 책임감 인식
- 중학생 : 소득 관리, 투자 기초, 금융 위험 관리 능력 향상
- 고등학생 : 자립 준비, 신용관리, 투자 및 자산관리 능력 함양

○ 경제 계층별

- 저소득층 : 금융 소외 해소, 경제적 안정 및 자립, 금융 피해 예방
- 중산층 : 경제금융의 목표 수립과 달성, 효율적 자산관리, 미래 대비
- 고소득층 : 자산 증식과 보존, 세무 효율성, 세대간 교육

○ 가정 형태별

- 일반가정 : 자녀 경제적 자립, 미래 대비, 가계안정
- 한부모가정 : 경제적 어려움 해소, 자녀 양육 및 교육지원, 미래 대비
- 다문화 가정 : 금융 소외 해소, 문화적 차이 이해 및 적응, 경제적 안정 및 자립

3. 교육 현장에서 체감하는 “금융” 교육

- 청소년 금융교육 주최사 : 은행, 증권사, 보험사, 한국은행, KRX 등
- 금융교육예산 : 홍보, 마케팅 예산, 펀드 등 운용 수익금 일부, 사회공헌기금 등
- 소비자 참가비용 : 없음
- 참여 경쟁률 : 5대1
- 교육장소 : 연수원, 제주, 글로벌(중국, 일본, 대만 등), 박물관
- 교육방식 : 1DAY CLASS, 캠프(2박3일, 3박4일)
- 교사 : 대학생 및 대학원생
-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 공식 큐레이터 외 사설 큐레이터들이 있음
 - 월 평균 방문자 수 : 35,000명
 - 방문 형태 : 전시관람(85%), 체험참여(15%)
 - 사설 큐레이터에 의한 체험 참여비용 평균 : 38,000원/인
 - 사설 큐레이터 유형 : 일반 박물관 전문가, 금융전문가

4. 청소년들의 “금융”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 공공의 역할 (주제발표문에 대한 공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경 박사 주제발표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음.
-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금융 경제활동에 대한 노출과 참여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부작용 또한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다만, 청소년들의 금융이해력이 낮다면, 금융 경제 노출 증가 비율보다 부작용이 보다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김지경 박사의 주제발표를 통해 청소년 금융 이해력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성 대한 인사이트, 국가 중심의 정책 제언 등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증진을 통해 생애 금융웰빙 실현의 기본 역량 강화”에 대한 취지가 잘 설명되어 있음.

○ 민간의 역할에 대한 고민 (www.ajaschool.com 플랫폼을 기반으로)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증진을 통해 생애 금융웰빙 실현의 기본 역량 강화”를 국가적 목표로 볼 때, 민간의 협업을 통한 목표 달성을 효율적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민간 금융기업의 역할
 - :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금융교육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나, 예산과 수혜자가 한정적이며, 방향성이나 금융교육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함.
-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개별(사설) 전문가들의 역할
 - 체험학습에서 금융, 경제교육 분야는 “역사체험” 다음으로 인기가 높은 테마임
 -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청소년 금융교육 시장임
 - 소비자들이 직접비용을 내고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시장이 형성됨.
 - 예약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예약 마감일 될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음.
 - 전문가 진입이 자유로우며, 교육분야(특히, 금융, 경제교육분야) 일자리 창출
 - 시장 수요공급에 의해 한계 없이 성장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 자율적 질관리 진행(만족도, 후기, 가격 등)
 - 소비자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시장 경제에서의 활성화 방안으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고려와 지원 논의가 필요해 보임.

토론 4

청소년 금융교육의 본질적인 변화 기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건전한 금융 태도의 함양

박 소 연

(주)유니어스에듀 대표)



2024년 청소년정책포럼

토론 4

청소년 금융교육의 본질적인 변화 기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건전한 금융 태도의 함양

박 소 연 (주)유니어스에듀 대표

이 발표문은 현재의 금융교육을 재정비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청소년의 금융 이해 수준과 금융 생활 실태를 분석하여 정책 측면에서 다각적인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금융 지식이 학술적인 교육만큼 중요해진 시대에, 금융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시대적 요구이며, 필수적인 능력으로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의 금융교육은 단순히 관련 지식을 축적하는 것을 넘어 건전한 금융 태도를 함양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번 발표문은 청소년 시기에 적극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정보 탐색의 의지와 사고방식을 함양해야 하는 금융교육을 실천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금융교육 과정과 함께 부모의 금융 지도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발표자의 논지에 공감하면서도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며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 금융 이해의 실태와 금융교육의 재정비

이 발표문은 다각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금융 환경을 함께 조명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정보를 쉽게 얻지만, 실질적인 금융 이해와 적용에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이 격차는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할 동기의 결핍과 효과적으로 활용할 선택 기준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융교육은 자기 주도적 정보 탐색을 장려하고, 실생활에서의 금융 관리를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금융 교육이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 의사 결정 능력과 동기부여를 강조해야 함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실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발표자의 연구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내용과 연계하여 몇 가지 질문과 제안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발표문의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자기 주도적인 금융 정보 검색 경험이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크게 높여준다는 지점은 매우 고무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금융 개념을 자율적으로 탐색하고 질문하도록 장려할 때, 금융 문제에 대해 더 실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추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금융 의사 결정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경제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 의사 결정 능력을 키워주는 방향에서 금융교육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가짜 뉴스와 자극적인 이야기 역시 포화 상태에 이르러, 청소년들의 경우 거짓된 유혹에 쉽게 빠지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정보 속에서 진짜 정보, 올바른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취사선택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경험 교육이 결합한 교육 과정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회성의 단기적 교육이 아닌, 지속적이고 가정과 연계된 단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나 가정내에서 금융 개념을 자율적으로 탐색하고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음은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두 가지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육 기관과 가정에서는 청소년들이 금융에 대한 호기심과 동기를 갖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토론, 재무 계획 실습, 게임화된 교육 방법 등을 통해 실천 능력을 키우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최근 게임을 통한 금융교육은 여러 교육 기관을 통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경제와 금융에 대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토론하는 환경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가정 내에서도 금융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금융적 호기심을 높이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문에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의 확충은 이제 시대의 요구이며, 더 나아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 내용 면에서는 돈과의 긍정적인 관계 구축을 강조해야 합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주의와 자제에서 기회, 책임, 권한 부여로 전환해야 합니다. 저축으로 성취감을 느끼거나 위기 상황과 결핍을 극복하는 경험 등을 통해 긍정적 사고를 장려하고, 청소년이 정보에 기반한 금융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공된 실험적 경험의 방법은 청소년이 정보에 입각한 금융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 스스로가 금융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훈련. 또한 금융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재무 관리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부모의 역할과 부모 교육의 확대

발표문에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청소년의 재정적 태도 형성에 있어 부모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사회적 규범은 종종 금융 지식보다 학문적 성취를 우선시합니다. 이는 금융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14년간의 금융 교육 경험을 통해, 금융 교육에 대한 인식은 점점 개선되고 있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투자'와 '부'가 금기시되었고, 청소년의 투자 관심이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가정의 재정 상태를 자녀와 공유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투자가 금융 관리의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팬데믹과 경제적인 변동을 겪으며 이러한 인식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부동산값 폭등, 저금리 시대 속 투자로 인한 성공 열풍이 미디어를 통해 과열되면서 자녀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대물림할 수 없다는 부모들이 많아진 것도 영향을 미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단계적 교육이 아닌, 단순 '행운'을 바라는 태도도 함께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알파 세대에는 '에잇 포켓(Eight Pocket: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한 명의 아이를 위해 부모, 양가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까지 지갑을 연다는 뜻)'이라는 신조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자녀의 경제적 결핍 경험을 피하려는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경제적 자립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고려할 때, 자녀 용돈 교육과 부모 교육은 기존 방식과 차별화되어야 하며, 사회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과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사회적 격차를 메우는 금융교육의 방법에 대해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발표자님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청해 듣고 싶습니다.

셋째, 금융웰빙은 건강한 금융 태도에서 출발

금융웰빙(Financial Well-being)은 개인이 자신의 현재와 미래 금융 상황에 대해 만족하고 안정을 느끼는 상태로, 단순히 많은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 목표 달성, 경제적 자립 준비, 경제적 위협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이는 금융교육과 정보 접근성이 좋을 때 가능해지며, 미래를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현명한 금융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의 금융 상태는 이러한 '웰빙'에서 멀어 보입니다. 통계청에서 발간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9.8%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아동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0년 2.5명, 21년 2.7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연령대는 더욱 낮아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의 금융교육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금융 웰빙 수준은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해결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될 뿐만 아니라 추구하는 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올바른 관점 형성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며, 의사결정 문화를 조성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금융교육을 정보 공유의 렌즈로만 볼 경우, 정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과정으로 국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 올바른 관점을 형성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워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삶의 필수 기술로 이해하고, 실제적인 경험이 가미된 금융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융교육 환경의 재정립은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 변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교육이 가진 특징 중 하나는 사회성의 발달, 인성, 문해력, ESG 등 다른 영역의 교육들과 함께 유기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금융 생활 태도는 넓게 보아 삶의 태도를 함께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저는 교육 현장에서 금융+ESG, 금융+인성, 금융+문해력 등의 통합적 사고를 요하는 금융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는 매우 높으며, 금융 용어에 대한 접근성 또한 높아지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금융 생활은 모두가 겪게 되는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에 타 교육과의 협업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해서는 다면적인 교육 방법이 필요하며, 금융교육이 다른 교육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발표문에서 지향하는 금융웰빙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요? 아울러 통합적 교육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데 더 깊은 통찰을 얻고자 합니다.

넷째,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제언

최근 A대학교에서 진행한 특강에서는 돈의 가치, 금융 관리 필요성, 사회에 기여하는 ‘착한 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주최 기관의 관계자는 내용 중 부에 대한 동경을 조장한다고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학생들은 경제적 자유와 부를 갈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 교육에 대한 학생들과 기관 관계자 간의 인식 차이를 명확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성 세대 중 일부는 여전히 부의 축적과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는 부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낳기도 합니다. 많은 교육자와 기관 지도자들이 금융교육을 정보 전달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느껴집니다. 이는 ‘스스로’ 금융 생활에 첫걸음을 내딛는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심을 길러주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 지식을 올바르게 추구하려는 청소년과 사회 초년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 상황을 인식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평소 교육 현장에서 금융교육의 평가가 질적인 평가가 아닌 참여 인원수에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 간혹 우려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금융교육에서는 몇 명이 이 강의를 들었는가가 아닌, 소수의 인원이라도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본질적인 금융교육이 방향과 부합한

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기기는 하지만 평가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금융교육에 대한 질적 평가의 기준도 함께 점검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자립준비청년과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장기 금융교육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 교육과 실질적 경험 공유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4-5개월에 걸친 단계별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제 금융상품 가입, 저축 습관 형성, 미션 기반 소비 등 실생활과 밀접한 경험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에서 제가 가장 고심했던 부분 중 하나는 보호 아동들에게 심리적, 경제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교육을 접근하고, 습관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을 직접 교육하고 멘토로서 함께 현장에 나가 교육에 참여하며 실질적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참여자들은 금융 생활 태도에 긍정적 변화를 경험했고, 이는 데이터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 생활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고, 먼저 경험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각 기관 담당자와 교육생, 그리고 멘토로 참여한 자립준비청년들과 함께 교육을 진행했던 전문 강사 모두가 교육의 효과를 충분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금융교육’은 다회기 교육, 사전/사후 테스트의 데이터 수집 등을 통해 질적 평가의 틀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제 6]을 통해 제안해 주신 금융 상품과 서비스 이용과 연계된 교육과 질적 평가의 기준이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어 등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발표문의 내용은 금융교육에 대한 필요성뿐만 아니라 현 실태에 기반한 실제적인 교육 방법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 현장의 의견을 덧붙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토론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5

청소년 금융 교육 정책 목표의 효율적 추진 - 중/고등학교 금융 교육 현장의 제언

정 윤 식

(주)롬버스 대표)



2024년 청소년정책포럼

토론 5

청소년 금융 교육 정책 목표의 효율적 추진 - 중/고등학교 금융 교육 현장의 제언

정 윤 식 (주)롬버스 대표

2024-1 청소년 정책 포럼

청소년 금융 교육 정책 목표의 효율적 추진 - 중/고등학교 금융 교육 현장의 제언

정윤식
(주)롬버스 대표

■ 금융 교육 정책 목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교육 현장의 제언

① 『금융 이해력 증진을 통한 금융 웰빙 실현의 기본 역량 강화』 > 『금융 교육 정책 목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정립』

① 『금융 교육 정책 목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정립』 > 교사와 학부모의 이해도 증진을 위한 지속적 커뮤니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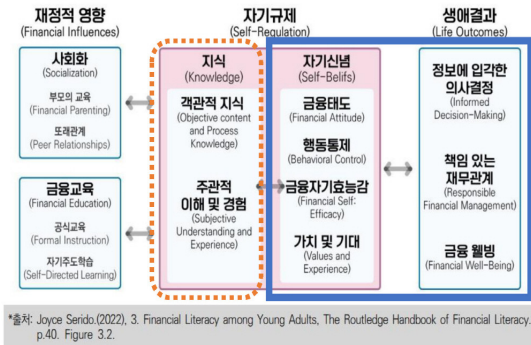
금융 교육 정책 목표의 방향성과 부합하는 ② 『의사결정 및 교육 실행을 위한 지원 기능』 마련을 적극 검토」

금융 교육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③ 『기존 일회성 금융 교육 방식 및 금융 지식 중심 교육 방식의 재검토』

다양한 성격의 청소년 Peer Group를 위한 ③ 『금융 교육 콘텐츠 기획 및 설계의 재검토 및 개선 필요』

금융 교육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의 ④ 『금융 교육 생태계의 조성 및 발전 환경 육성』

『금융 이해력 증진을 통한 금융 웰빙 실현의 기본 역량 강화』 > ① 『금융 교육 정책 목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정립』



• 우리의 금융 교육의 정책 목표는 『금융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아닌 『금융 이해력 증진을 통한 금융 웰빙 실현의 역량 강화』로 확대 심화

> 금융 이해력의 개념을 『개인의 금융 웰빙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돈 문제와 금융에 대한 인식과 태도, 금융 지식과 기술, 실행력 등의 조합』(OECD/INFE)으로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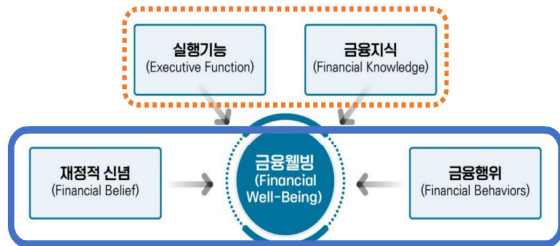
> 금융 지식 + 금융 태도와 자세 = 금융 이해력

• 현재 금융 교육의 내용에 대한 교사, 학부모들의 상당수의 인식은 돈을 벌 수 있는 금융 지식 및 기술(財테크) 수준에 머물러 있음

• 현재 금융 교육의 내용은 대부분 금융 지식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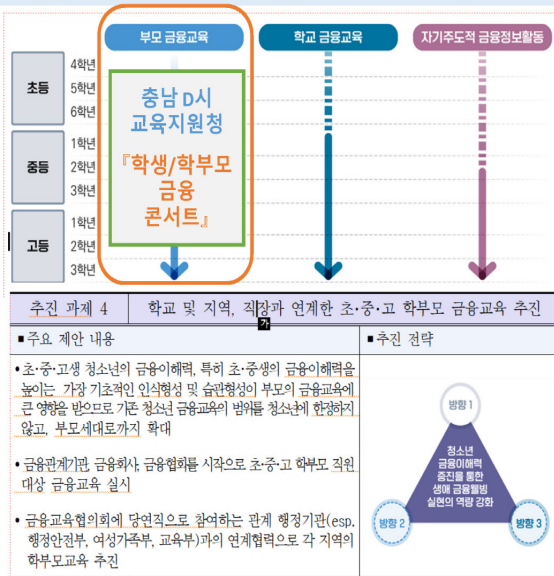
> 청소년 금융 교육을 총괄하는 주체(Control Tower)에서 이러한 금융 교육의 정책 목표를 명확히 정립하고 관련자(Stakeholders)들에게 금융 교육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 충분히 소통할 필요성

- 교육 당국, 실행 지원 기관(금융회사, 재단 등), 교육 강사
- 학교장 및 경제 금융 교육/진로 담당 교사, 학부모, 학생



① 『금융 교육 정책 목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정립』 > 교사와 학부모의 이해도 증진을 위한 지속적 커뮤니케이션 필요

- 청소년 금융 교육에서 부모는 매우 크고 중요한 영향력
- 금융 교육 정책 목표에 대한 학부모들의 올바른 이해와 공감 필요 > 관련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필요



- 교사는 학교 금융 교육 프로그램의 선택 및 평가의 주체
- 금융 지식을 포함한 『금융 이해력 증진을 통한 금융 웰빙』이라는 금융 교육 정책 목표에 대한 이해와 공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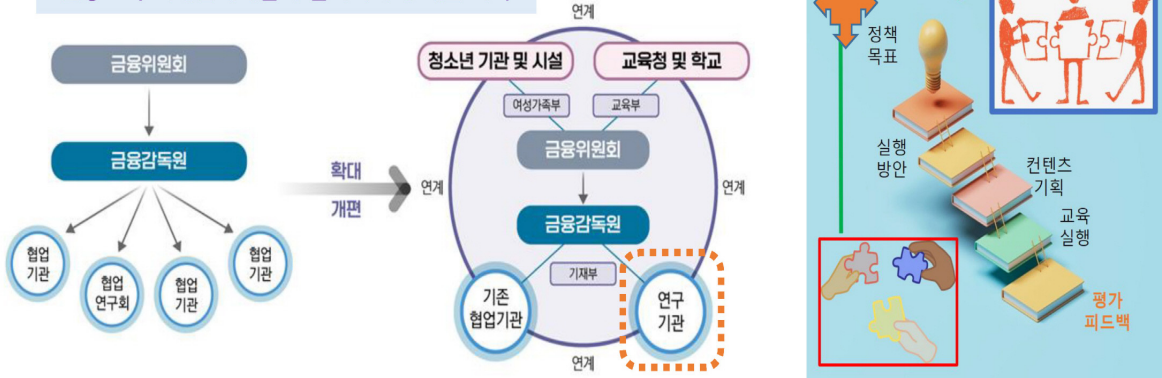
• “제가 원했던 강의는 이자, 목돈 만들기, 투자하는 법 등 금융, 돈 벌기에 관한 세부적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가 아니라 경제와 금융이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고 왜 중요한지에 대한 깨달음과 통찰/인사이트(경제와 금융에 대한 철학)를 주는 강의입니다.

• 아이들은 금융 이해력 수업에서 “나 자신의 보호(Protect Myself)”를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로 꼽았습니다. “경제 금융 지식을 익히는 것,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다.”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공부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 경기도 안산시 D 고등학교 진로 교사

> 금융 교육 담당 교사 연수, 관련 교사 커뮤니티 등을 통하여 금융 교육 정책 목표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와 공감을 얻어 학교 현장에서 정책 목표에 방향이 일치하고 부합하는(Aligned) 금융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선택/평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② 금융 교육 정책 목표의 방향성과 부합하는 『의사결정 및 교육 실행을 위한 지원 기능』 마련을 적극 검토 필요

금융교육 이해관계자들의 불가피하게 다른 시각



- ① 정책 결정 기능 (Top Management) ② 정책 수립 및 실행의 지원 기능 (Staff) ③ 정책의 실행 기능 (Line 조직)
- ① 금융위원회, 금융 감독원, 교육부, 여성가족부 ③ 협업 기관: 금융회사, 공익재단, 교육회사 - 현장 교육 강사...

▷ 금융 교육 정책 목표와 일선 교육의 방향성을 정렬(Align)시키고, 실행 기능을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능 필요
② 정책 수립 및 실행의 체계적/지속적 지원 기능의 필요성: ①과 ③간의 Communicator & Facilitator 기능

금융 교육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③ 『기존 일회성 금융 교육 방식 및 금융 지식 중심 교육 방식의 재검토 필요』

• 일회성 & 강의 교육 ▷ • 커리큘럼 & 코칭 방식

• 지식 중심 ▷ • 나의 삶, 돈/금융에 대한 태도



- 우리의 금융 교육의 정책 목표는 『금융 이해력 증진을 통한 금융 웰빙 실현의 역량 강화』로 확대 심화
- ▷ 금융 이해력의 개념을 『개인의 금융 웰빙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돈 문제와 금융에 대한 인식과 태도, 금융 지식과 기술, 실행력 등의 조합』 (OECD/INFE)로 명확화 ▷ ◇ 금융 지식 + 금융 태도와 자세 = 금융 이해력
- ▷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과 돈 문제와 금융에 대한 인식과 태도, 금융 지식들을 학생들이 연결하여 생각해 보고, 자신에게 맞는 금융 이해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와 주려면 1회성 강의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임
- ▷ 향후 금융 교육의 확대 심화, 정규 교육 과정의 일부로 정착하기 위해서도 커리큘럼 & 코칭 방식의 확대를 검토 필요

다양한 성격의 청소년 Peer Group를 위한 ③ 『금융 교육 콘텐츠 기획 및 설계의 재검토 및 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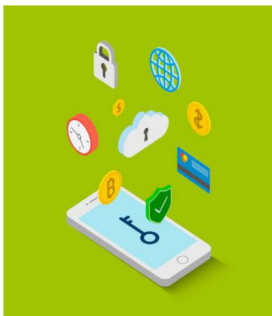


추진 과제 5	초·중·고생 특성 및 금융이해력 수준을 고려한 교육방법 재구성 : 자기도전포상제 활용
■ 주요 제안 내용 - 초·중·고생 시기에 금융이해력에 부모의 금융교육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중·고생 시기부터 자기 주도적 금융정보의 탐색과 활동 경험이 영향 요인으로 등장하고, 고등학교 시기에 그 영향력이 강화된다는 본 연구의 실증연구에 비추어 볼 때, 학교 교육만이 아닌 중·고생의 자기 주도적 금융정보 탐색 및 활동 경험을 도울 수 있는 교육방법 필요 - 청소년활동지원정책의 하나로 여성가족부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제7조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자기도전포상제'를 금융교육의 방법으로 연계 활용할 것을 제안	■ 추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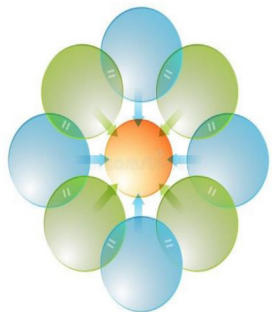
- 내용이 딱딱해서 어렵고 지루하다.
- 그냥 재미가 없어서 관심이 없다.
- 이게 지금 나와 현실적으로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
- 아무 것도 하기 싫다. 그냥 자는 걸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다.

- 학년별 (중 1 vs 중 3 vs 고 1), 특성화고, 특목고, 지역별 특성, 가정 환경, 다문화
- 수동적 일률 교육 vs 자발적 관심 그룹(동아리) ※ **고 1/2 동아리 15회 경기 H**
 - ▷ 표준형 외에 수요층 대상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금융 교육 콘텐츠의 개발 필요**
 - ▷ 일방적 지식 전달의 강의를 지양하고 **질문, 참여, 토론, 활동** 등을 통해 다른 친구들의 생각도 들어 보고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코칭 방식의 프로그램 개발**
 - ▷ 학생 스스로 돈 문제와 금융에 대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탐색/공부하는 능력 배양**

④ 금융 교육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의 『금융 교육 생태계의 조성 및 발전 환경 육성』



- 금융 교육의 장기적 발전과 혁신을 위한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 및 발전 환경 육성 방안 검토
 - ▷ 학교 공교육 대상 우수한 금융 교육 콘텐츠 개발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환경 조성
- 소명 의식과 강의 능력이 우수한 **금융 강사진의 발굴**과 지속적 육성 체계의 필요성
 - ▷ 금융 교육을 실행하는 협업 기관의 체계적인 우수한 강사 선발 및 평가/육성 시스템 필요



- ▷ 금융 교육의 생태계 조성
- ▷ 인센티브와 건전한 경쟁 환경의 마련



- 끝 -

MEMO

MEMO

MEMO

MEMO